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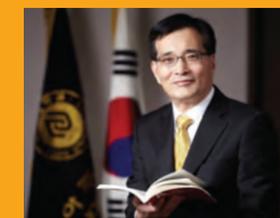
Letter from President

감사합니다.

학교에 장학금이나 발전기금 등을 기부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드리는 인사입니다. 최근 기부자들이 많아져 감사의 인사가 잦아졌지만 매번 고마움의 크기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자들에게서 장학금 수혜자들의 고마움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성적, 가정형편 등 다양한 명목의 장학금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외부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자신은 성적이 좋은데 왜 장학금을 안주냐며 학교를 고소한 학생들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학교의 한 기부자는 “내가 장학금을 줬던 장학생이 취직 후에 찾아와 고맙다는 뜻으로 사준 칼국수 덕에 장학사업을 계속 펼쳐가고 있다”며 “그 칼국수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정말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학금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겪어야 봄이 반갑고,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이 더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분일수록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생각이 많은데 받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지 반성해봅니다.

아주대학교를 뜻하는 아주, 친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름입니다. 아주가족 중에는 아주란 이름을 자랑스럽게 가꾸어 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의 아주는 4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피워 올린 소중한 가치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아주의 일원으로 아주의 존재에 감사의 마음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우리 아주의 가치는 지난 40년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__안재환

안재환

Contents

Special Theme__ 강의를 말하다

좌담_ '명강의'의 조건	05
학생수기_ 기억에 남는 명강의	10
교수학습개발센터 소개_ 좋은 강의 만들기	12

Story of Ajou__

Zoom In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 개설	14
Prof. Column	오수기 교수	17
Focus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사업단	22
Research	아주중개연구센터	24
Photo Sketch	설렘 가득한 아주의 입학식	26
Vision	소프트웨어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32
Passion	아주대학교 해외봉사단	38
Story	고전에서 질병을 읽다	40
Alumni Story	이너버스 이을석 대표(전자 89)	44
Thank Donor	주일로 교수	46
Admission Column	한호 입학처장	54

Ajou Univ. News__

People	20
Award&Selection	28
Event	30
Medical Center	36
그외소식	42
Donation News	48

Ajou University Magazine _ 2014 Spring_Vol.9

아주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http://www.ajou.ac.kr/webz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_ 2014년 4월 14일 / **발행인**_ 안재환 / **편집인**_ 노학래 / **발행처**_ 아주대학교 홍보실 031 • 219 • 2918 /
기획 및 디자인_ 트레이드인터내셔널 / **사진**_ 스튜디오 보브

강의를 말하다

교수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칭찬 받아 마땅하면 칭찬해주고, 재능이 보이면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다. (중략) 대학도 그래야 한다. 교수의 책임은, 거울을 보았을 때 자라나는 근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랜디 포시(Randy Pausch, 1960-2008) 교수의 저서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 중에서-

오늘도 아주대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꿈이 한뼘 한뼘 자라나고 있다. 삶의 지혜와 지식을 버무려 풀어내는 교수의 말이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그 꿈의 자양분이 되어 주는 것이리라. <아주대학교 사람들>은 '좋은 강의'로 소문난 아주대 교수 세 분을 모시고 명강의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대해 들어왔다. '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세 교수에게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듬뿍 묻어났다. 학생들이 보는 좋은 강의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소개도 함께 심는다.

정리 이 슴(홍보실)



대학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자 역할은 '교육'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강의이다. 학생들은 강의를 매개로 배우고 읽고 쓰며 한걸음씩 나아간다. 스승을 만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위로받는 곳도 바로 강의실이다. 수강생의 머리와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명강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할까?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이 손에 꼽는 명강사 3인에게 좋은 강의를 위한 고민과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정리 이 슌(홍보실)



아주대학교 명강사 3인이 말하는 ‘명강의’의 조건

첫 강의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송하석__ 1994년 아주대학교에서 처음 논리학을 강의했다. 대학 시절 워낙 공부를 안 하던 세대였던지라 유학 시절 접했던 강의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강단에 서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는 꿈을 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설렘과 기대가 많았지만 열정이 너무 앞서 아이들을 뒤흔들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괴로워했다.

이기근__ 정확히 9년 6개월 전 아주대학교에 임용됐다. 강의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또 준비했다. 열심히 했지만 학기 말 강의 평가 점수가 좋지 않아 실망이 컸다.

문혜원__ 1991년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강의를 나갔다. 방송통신대학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나는 어렸고 수강생들은 나이가 많았다. 무척 긴장했지만 열의 있는 학생들 덕분에 열심히 강의했다. 문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고 아주 즐거운 수업이 됐다.

강의에 대한 욕심이 학생들의 현실과 달라 고민한 적이 있는지?

송하석__ 늘 학기가 끝나면 아쉬움이 남는다. 내 스스로 기대했던 것만큼 강의를 잘 해내지 못한 것 같고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타 대학 대학원에 출강할 때 경험인데, 대학원 철학과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임에도 철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했다. 학부 수업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좌절감을 느꼈다. 수업에 임하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주대학교 학생들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욕심이 너무 커서 지나치게 어려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강의에는 왕도가 없어 늘 수업을 진행하며 페이스를 조절하고 고민하게 된다.

이기근__ 전공 수업에서 설계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한 학기 동안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물을 받아보면 거의 당일치기 수준인 내용도 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뒤 '모두 100점을 맞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아서 학생들이 불평한 적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내린 결론은 교수는 안내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서 교수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더 찾아가고 생각하며 살을 붙여야 한다.

문혜원__ 국문과 전공과목인 '시론(詩論)' 수업을 할 때의 일이다. 강의계획서에 따라 한 달 정도 강의를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 무얼 배우고 싶은지, 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학생들의 답을 검토한 뒤 강의계획을 완전히 바꿨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인에 대해 가르쳤다. 그 후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011 수상자_ 송하석 교수(기초교육대학)



2012 수상자_ 문혜원 교수(국어국문학과)



2013 수상자_ 이기근 교수(전자공학과)

패널__ 2011~2013 아주대학교 교육 우수 교원상 대상 수상자 / 아주대학교는 매년 교육 우수교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강의 평가 결과와 수업 운영 성과가 선발 기준이 된다. 2013학년도에는 이기근 전자공학과 교수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승환(경영학과), 이해경·이나레(영어영문학과), 정재영(기초교육대학) 교수가 우수상을 받았다.

강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기근__ 내 강의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공학 분야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잘 훈련받고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송하석__ 학기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강의 내용 그 자체를 전혀 기억 못한다 해도 좋다. 클릭 몇 번이면 궁금한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고 한다.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지적인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서양고전철학'이라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칸트를 비롯한 7권의 철학 고전을 발췌해서 읽혔다. '이건 대학원생들이나 읽는 어려운 텍스트야. 이걸 읽었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해줬다. 해볼 만 하다라는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면,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잘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혜원__ 나도 '논리적으로 사유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다. 암기한 지식 말고 학생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강의 시간에는 특히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주 대학교 학생들은 강의 이해 능력이 뛰어나고 잠재적인 가능성도 높은 친구들이다. 잘할 것으로 믿고 지켜보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학생들이라서 먼저 학생들을 믿는다. 강의에서 시작된 인연이 강의실 밖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루 종일 정 말 많은 학생들이 연구실을 찾아온다. 가끔 지치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마지막 보루다. 사회에 나가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 선생으로서 의지처가 되어주고 싶어 학생 상담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학생들에게 항상 연결되어 있으려고 한다.

'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지? 강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기법이 있다면?

이기근__ 남들 앞에 서는 일은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다. 교수로서 학생들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눈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자신감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원활한 수업을 위해 오늘 강의의 전체 스토리를 짜고, 이를 완전히 머릿속에 담고 임한다. 수업을 위해서는 PPT와 레이저포인터 그리고 분필만 있으면 된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종 동영상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한다.

송하석__ 나는 대중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리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학생들 앞에 설 때 불안감이 있었다. 학생들이 나를 자신감 없는 교수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대형 강의실에서도 마이크를 쓰기 싫어 육성으로 강의했다. 마이크를 쓰면 목소리 떨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 지금은 학생들을 많이 쳐다봐 주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며 참여를 유도하는 게 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문혜원__ 강의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면서 맥을 놓칠 때가 있다. 강단에 선 초반에는 이런 경우 당황하다 못해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느냐고 묻는다. 솔직하고 편안하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도 오히려 좋은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명'이다. 나는 150여명이 수강하는 교양강의에서도 수강생들의 이름을 거의 외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깨어나면서 강의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인문학의 특성상 교수와 학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게 강의 효율에도 큰 도움을 준다.

내가 꿈꾸는 강의는? 꿈꾸는 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기근__ 2년 전 연구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다양한 교수법을 보고 싶어 여러 수업을 들어가 보던 중 눈에 띄는 강의가 하나 있었다. 강의 그 자체는 심플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교수가 내준 설계 프로젝트였다. 많은 공학도들이 매달려 연구하고 있는 최근 현안에 대한 과제를 주고 이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했고, 그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youtube)에 올렸다. 그 동영상을 보고 교수가 채점을 하면서 동시에 동료 학생들끼리도 공유하고 점수를 매기게끔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배우고 익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업시간에 교수는 학생들에게 핵심적 내용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학생들은 그 위에 살을 붙여야 한다.

송하석__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플라톤의 '향연'과 같은 심포지엄을 꿈꾼다. 차를 나눠 마시며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 코멘트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대규모 강의라면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강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형 강의가 샌델 교수 경우처럼 수월하게 진행이 되려면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야 할 뿐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 수업을 도와주는 조교들이 탁월해야 한다. 좋은 조교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대학원에 좋은 인재가 있어야 한다. 좋은 학부생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대학원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혜원__ 나는 꿈꾸던 강의를 직접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강사가 되어 직접 수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고 나는 학생들과 앉아서 강의를 듣고 질문을 했다. 강사가 된 학생은 긴장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잘 수업을 진행해갔다. 학생을 보며 내가 배울 점도 많이 있었다. 학생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 클래스라면 이런 수업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대형 강의에서는 조교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런데 공과대학과 달리 인문대학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학부 수업을 도와줄 훌륭한 조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똑똑한 학부 학생들이 동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모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학부 학생들에게도 롤모델이 생기지 않겠는가.



기억에 남는 명강의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성장한다. 강의를 통해 지식을 전수받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스승의 격려와 꾸지람을 통해 스스로를 다잡기도 한다.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로 기억하고 있을까? 아주대학교 교무처가 공모한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와 '함께 하고 싶은 나의 교수님' 수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정리 이 숲(홍보실)

스카이프 통한 실시간 과제 지도 _서동석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임성혁 경제학과 10학번

서동석 명예교수님의 거시경제학을 수강하기에 앞서 고민이 많았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퀴즈도 많고 매주 과제도 나오는 수업이어서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들의 결론은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다는 것이어서 나는 수강을 결정했다.

교수님은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어느 교수님보다도 수업에 열정적이셨다. 한 챗터가 끝날 때마다 연습문제를 풀어 제출하는 과제를 내셨는데, 제출한 모든 과제물에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셨다. 정답과 오답을 점검하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해설을 덧붙여주셨다. 모든 수강생의 과제를 이런 식으로 점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교수님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서 교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스카이프(Skype,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통화 프로그램)를 사용하셨다. 과제를 풀거나 퀴즈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스카이프를 통해 피드백을 받으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어색함 때문에 이 수단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퀴즈를 준비하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용기를 내어 교수님과의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교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서동석 교수님과의 수업을 통해 매주 그때그때 과제를 하고, 수업 직후 바로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 공강 시간에 바로 전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복습했고 이러한 습관이 자리 잡히자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잊지 못할 토론식 수업 _고(故) 김영욱 교수님의 '기술과 사회'

박찬영 화학공학과 08학번

아주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를 고르라고 한다면 2012년 1학기 수강했던 '기술과 사회'를 꼽겠다. 이 과목을 맡으신 교수님은 화학공학과 김영욱 명예교수님이셨다. 교수님은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며 수업을 진행하셨고 수강생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토론을 통한 수업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각 조에서 택한 주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는데, 해당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이 이어졌다.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살을 붙여주셨고 나름대로의 해석까지 덧붙여 이해를 쉽게 해주셨다. 또 학생들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중재에 나서기도 하시면서 올바른 토론의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교수님은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우리들을 지긋이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눈길로 질문에 답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김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기술과 사회 과목은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2학기에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고 우리들의 충격도 컸다. 다시는 김 교수님의 얼굴을 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인생을 빛나게 할 마음가짐을 갖게 한 강의 _하영화 교수님의 '수학2 기초반'

김현호 산업공학과 11학번

파릇파릇했던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1학년 2학기를 맞이했다. 1학기 때 수학1에서 D+를 받은 탓에 자동으로 수학2 기초반에 합류하게 되었다. 다른 수학 반은 1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하지만 기초반은 3번씩 수업을 했고, 과제도 많아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뒤늦게 물려왔다.

후회 속에서 처음 만난 수학과 하영화 교수님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셨다. 교수님은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셨지만 학기 초반 불타오르던 내 열정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었다. 단풍이 들고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교수님은 오늘은 수업 없이 티타임을 가지자고 제안하셨다. 그날 들었던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랬다.

하 교수님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겪어 다리가 조금 불편해지셨고 중학생 시절 화학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도중, 플라스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생겨 한 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불의의 사고로 원하던 공대 진학이 어려워지자 교수님은 수학과를 택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유학을 마치고 교수로 부임하게 되셨다는 것이다.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왜 수학 기초반에 와 있는지를 분석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다. 교수님과 같은 상황에 내가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수강생들과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진심을 담은 박수를 보냈다. 이 시간 이후 나는 강의 시간에 늘 앉던 맨 뒷 자리에서 맨 앞자리로 이동했다. 그리고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지 않고 공부에 투자하니 학점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마음가짐을 달리 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을 빛나게 할 마음가짐을 주신 하 교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한다.

좋은 강의 만들기

-교수학습개발센터 소개

아주대학교는 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교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특강, 강의분석 컨설팅, 동료 멘토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01년 교무처 내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시작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 역량 개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이러닝(e-learning)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리 이 슐(홍보실)



강의 질 개선을 위한 교수법 특강과 동료 멘토링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시기별 주제별로 교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프리젠테이션 기법과 ▲강의교안 작성법 뿐 아니라 ▲강의발성법이나 ▲영어강의 교수법과 같이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된다. 특강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교수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강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제공 지원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 중 하나다. 같은 전공분야 교수들이 팀을 이뤄 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가 컨설팅, 강의촬영과 학생 대상 강의 중간평가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임 교수들은 의무적으로 동료 멘토링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같은 학과의 선배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강의 모습을 촬영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목적이다.

신종호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는 “신임 교수와 멘토, 그리고 교수법 전문가가 수업의 목표와 기법 등을 공유하고 촬영된 강의 장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며 “신임 교수는 성찰 보고서를, 멘토 교수는 멘토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법 통한 교과목 혁신과 학생 지도 위한 도움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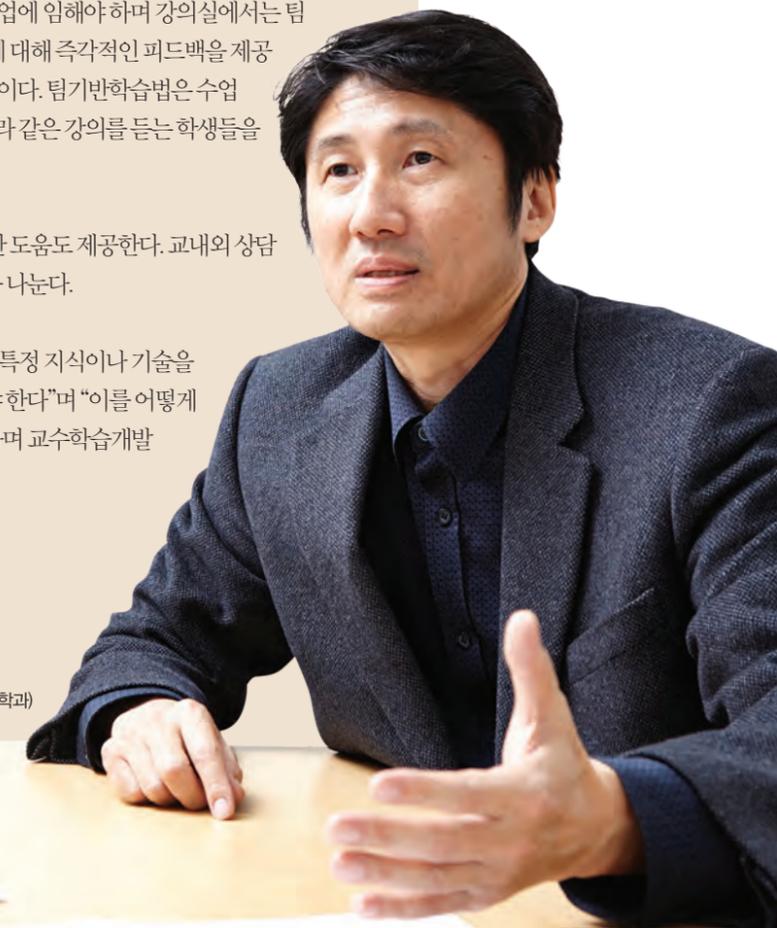
그밖에도 센터에서는 새로운 교수법을 통한 교과목 혁신에도 노력하고 있다. 교수들이 문제중심 학습(PBL)과 팀기반학습(TBL) 등을 활용해 교과목을 설계하도록 권하고 컨설팅, 연구비, 조교 등을 지원하는 것. 대형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기 쉬운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의 구조 자체를 바꿔보는 시도다.

문제중심학습의 경우 실제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스킬 등을 기를 수 있다. 팀기반학습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수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학생 개개인이 수업 전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수업에 임해야 하며 강의실에서는 팀 기반의 토론과 분석이 진행된다. 교수는 각 팀이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팀기반학습법은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을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학습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강의'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학생 지도를 위한 도움도 제공한다. 교내외 상담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들의 특성과 상담 기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교육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어떻게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장_ 교육 교수(미디어학과)



?

인문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 개설 주도한

김봉철__ 교수(사학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수식하는 용어는 '혁신의 전도사', '창조적 천재', '위대한 CEO' 등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가 2010년 1월 '아이패드'를 처음 선보이는 발표장에서 인문학을 거론했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 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라는 발언은 최고경영자들의 가슴 속에 인문학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글 이원규(편집실)

요즘 문학과 역사, 철학을 넘어 종교와 예술까지 인문학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다시 인문(人文)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싶다는 갈증이 샘솟고 있는 것. 이러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서는 기업체 CEO 또는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한 '제1기 최고 관리자 인문학과정'을 개설했다. 그 과정을 주도한 김봉철 교수(사학과)를 만났다.

인문학이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학문이라면, 경영학은 실천적 학문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추구한다. 이에 수 십 년간 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최고 경영자들은 효율과 성과라는 수레바퀴에 맞추어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십상이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과 평생교육원은 쉼 없이 달려왔을 사회적 리더들에게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또 그들과 인문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겠다는 목표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나 경기도 지역에서 대학이 외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을 개설한 것은 아주대가 처음이다.

김봉철 교수는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CEO들은 서울 지역 최고 관리자들에 비해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아주대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은 경기와 서울 남부 지역 최고 관리자들에게 인문학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지난 3월 17일 아주대 종합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31명의 수강생들은 두꺼운 책 한권씩을 받아 들었다. 첫 학기에 함께 읽게 될 고전은 공자의 '논어(論語)'다.

"인문학은 주체적이고 반성하는 학습입니다. 내가 빠진 성찰은 의미가 없고 끊임없는 반성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첫 학기 인문학 과정은 공자의 논어 외에도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함께 읽을 책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이 책들에 대한 강의를 접하기 전에 꼭 한 번씩은 읽어보고 수업에 임하라며 첫 시간부터 수강생들에게 과제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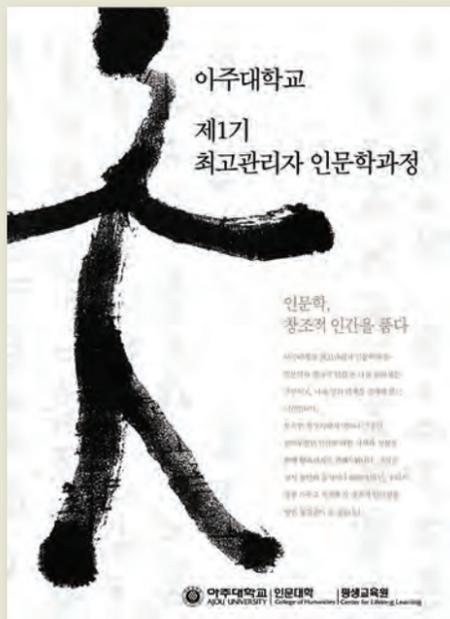
깊이 있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돈'인 최고 관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흥미로운 프로그램 설계도 중요하다. 아주대 인문학 과정은 12주 강의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일관성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한다. 지난 3월 개강한 첫 학기의 주제는 '인문학과 창조적 인간'이다.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와 현상, 그리고 인물들을 '창조성'과 연관 지어 봤습니다. 정도전, 모택동과 등소평, 정조와 화성, 이순신 등 이번 학기에 등장하는 모든 강의의 테마는 창조성 그리고 혁신 더 나아가서는 꿈과 상상의 영역으로 연결 됩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 교수는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에 참여한 CEO들이 하나의 풀씨가 되어 보다 큰 꽃을 피우리라 기대하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는 인문학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기업에 취업해서는 전공을 살려 일하기 힘듭니다. 인문학 강의를 통해 CEO들이 인문학을 직접 접해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을 실감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대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 소개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은 기업체 CEO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최고 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17일 개강한 제1기 최고 관리자 인문학 과정에는 31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강의는 아주대 종합관에서 주1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3시간씩 진행되며 총 3개월 과정이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인문학 고전 읽기 ▲인문학 일반주제 강의 ▲문화예술 영역 강의가 그것이다. 첫 학기 함께 읽을 고전으로는 공자 ‘논어’, 김부식 ‘삼국사기’와 호메로스 ‘일리아스’가 선정됐다.

인문학 일반주제 강의로는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의 삶과 꿈(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중국의 혁명가, 모택동과 등소평(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정조의 개혁과 화성 건설(유봉학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철학과 창조적 사고의 논리(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순신 다시보기: ‘난중일기’와 ‘칼의 노래’(문혜원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준비되어 있다.

3시간의 강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아주대에서는 각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덕분에 오랜 연구와 강의 경험을 겸비한 내실 있는 교내외 강사들을 모실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효자동 이발사’, ‘괴물’ 등의 영화를 제작했던 최용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가 한국영화의 성장 동력과 창작 과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현대 미술과 21세기 대중예술에 대한 강의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수강생들은 매학기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1박2일의 안동 문화기행이 계획되어 있다. 권기중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가 동행해 세계 유산이 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풍부한 설명을 곁들인다.



Prof. Column



아주대학교의 지난날, 프랑스와의 인연을 추억하다

오수기_ 교수(물리학과)

학생 여러분들은 집안 어른이나 아버지께서 오래된 족보를 보여 주시면서 집안의 내력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한 적이 있겠지요.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의 내력에 대해 말해 볼까 합니다. 우리 아주대학교는 작년에 개교 40주년을 지냈습니다. 1회 동문들은 환갑이 되었고 대학생 학부모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났으며 자녀들이 결혼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캠퍼스 플라자와 학교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도로는 우리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주대 삼거리라고 부르는 큰 길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야 우리 학교의 정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충무로에서 수원행 유선고속을 타고 막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수원 톨게이트를 나올 때까지 고속도로 좌우로 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고속버스 창가로 추수 후 쌓아 올린 난가리가 수확의 풍요로움을 보여 주었지요. 수원으로 들어와서 소나무 숲을 한참 달려 우만동 동네 어귀의 아주대학교 정문 임시 정거장에서 내리면, 저 멀리에 원천관 건물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딸기밭, 왼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개교 당시 우리 학교에는 기계과, 전자과, 화공과, 공업경영학과에 28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초대 학장님은 2년 전 작고하신 김현남 교

수님이셨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개교는 1965년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부 간의 문화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구상되었고, 1972년 양국 정부 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천관 2층 중앙 계단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은 우리 학교 개교일을 기념하는 1973년 4월12일 날짜의 동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개교에는 프랑스 낭트에 있는 낭트기계공대(Ecole Centrale de Nantes)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불 문화기술 협정 이후 당시 낭트대학교 물리학과 민선식 교수님과 낭트기계공대의 수잔 오프레 교수님(작고)의 기획으로 우리 학교로 보내질 실험실습 기자재, 교재, 교수 선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계과는 펠릭스 르 메트르 교수께서, 전자과는 이브 토마 교수께서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재의 선결과 배에 싣는 선적까지 챙기셨습니다. 이 두 분은 그 때 우리나라로 오는 데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3일을 걸려 오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각자 따로 출발을 하셨는데, 홍콩 공항에서 우연히 두 분이 같은 목적으로 서울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려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화공과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을 하는 분이 안 계셔서 여기에 적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2014년 2월 안재환 총장과 오수기 교수를 비롯한 아주대 관계자들이 낭트기계공대를 방문, 아주대 설립 초기 양교 협력을 주도했던 프랑스 교수진을 만났다. 사진 맨 왼쪽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이가 기계과 설립에 도움을 줬던 펠릭스 르 메트르 교수

▶ 오수기 교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샤를 에르발 교수(맨 오른쪽). 에르발 교수는 30대 초반 아주대에 부임해 기계공작 실습을 지도했다.

▼ 사진 맨 왼쪽, 검은정장의 백발 신사가 이브 토마 교수. 이브 토마 교수는 아주대 전자과의 설립에 도움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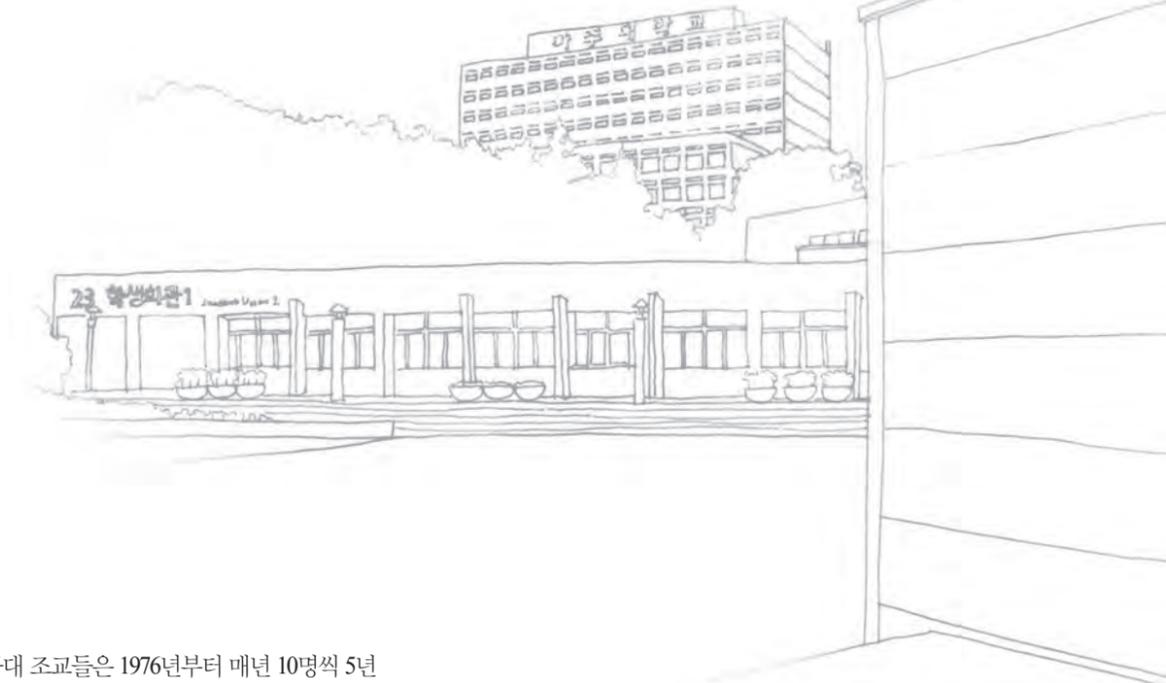
개교에 맞추어 완성된 건물은 전자과와 공업경영학과가 쓰는 원천관의 4층까지와 기계과가 사용하는 동관 1층 그리고 화공과가 쓰는 서관이 있었습니다. 원천관은 현재 5층이지만 사실 원천관 5층은 4층 건물의 옥상에 추가된 것이지요. 개교 당시 우리 학교에는 전교생이 참석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를 보던 강당이 바로 원천관 5층이었습니다. 개교에 맞추어 기계과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샤를 에르발 교수님이 부임해서 동관 1층의 기계공작 실습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에는 정밀공작이나 스테인리스 용접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우리 학교 실습실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부탁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관의 2, 3층 증축은 1층 실습실이 완성되고 사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교직원들은 모두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 직후 교직원들은 시멘트 타설이 진행 중이던 동관의 2, 3층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에르발 교수께서 1층 기계실습실에 계셨는데 다행히 무사하셨습니다. 작년에 만났을 때 에르발 교수는 저에게 “틀림없이 시멘트를 많이 빼 먹었을 거야”하고 짓궂은 웃음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아프리카의 케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원천관 5층의 증축 당시 예배 시간을 찍은 슬라이드 사진을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하는 가설물이 철재가 아니라 가지만 떼어 낸 소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로 된 상자에 모래를 담아 등에 메고 건물 밖에 임시로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등짐으로 나르던 시절이었습니다. 1973년 첫 입학식은 흰색 치마저고리의 동네 아주머니들과 갓 쓴 노인분들께서 나무의자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군대식으로 도열해 서 있는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입학생들이 2학년 말이던 1975년 1월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프랑스 대학으로 학부생들의 40일 해외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아주공대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학부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가장 먼저 실시한 학교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초창기 아주공대에는 스무 분 정도의 프랑스 교수들이 계셔서 불어를 가르쳐 주었고, 전공 실험실습을 진행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교수님 덕분에 아주공대 학생들은 프랑스에서 지원된 선진 실험기자재로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프랑스에 가서 연수를 했고, 나아가 박사학위도 받았으며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2월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관악캠퍼스로 이사한 모교의 선생님께 인사를 갔다가 아주공대 물리실험실에서 전임조교를 구하고 있으니 서둘러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아주공대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얻었고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낭트기계공대로 유학



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공대 조교들은 1976년부터 매년 10명씩 5년간 50명이 아주공대 교수요원이라는 명칭으로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40년 전 280명의 공업초급대학으로 시작한 아주공대는 이제 1만4000명의 구성원을 가진 아주대학교가 되었고 한국의 일류를 넘어 아시아 대학 랭킹 103위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봄마다 보릿고개가 힘들었던 40년 전 아주공대 초창기 학생들은 꿈을 품고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소년과 소녀들은 이제 대학교수가 되었고 대기업의 사장과 임원이 되었으며 벤처회사의 창업가가 되었고 변호사, 의사,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군 장성, 종교계 지도자가 되어 한국을 이끌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관에서 거행된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은 프랑스 대사의 환영사를 들으면서 아주대학교가 프랑스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궁금해했을 텐데, 이 글을 읽고 궁금증이 풀렸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40년 후 신입생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에는 나이가 환갑에 접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건데 여러분들도 선배들처럼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대학교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졸업 후에 잘 되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나는 103살이 될 터이므로 우리 학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는 오직 신께서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는 우리 사회에 성공한 동문들이 많이 배출한 좋은 대학이 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아주 캠퍼스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대장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뜨거운 불 앞에서 땀방울을 많이 흘려야 하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 1970년대 아주대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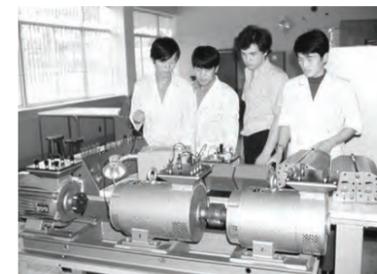
▲ 2014년 현재 아주대학교 전경



▲ 공사중인 원천관



▲ 프랑스인 교수들을 위해 지은 숙소 모습. 이 건물들은 2010년 모두 철거됐다.



▲ 전자공학과 실험장면. 초창기 아주대에는 젊은 프랑스인 실습 조교들이 여럿 근무했다.



▲ 프랑스인 교수와의 불어수업

Ajou univ. news

_People



보직교수세미나에서 교육·연구 우수 교수 시상

2월28일 울곡관에서 '2014학년도 1학기 개강보직교수세미나'가 열렸다. 각 단과대학 학장과 처장,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신임 교원 소개 ▲교육 우수·연구 우수 교수 표창 ▲안재환 총장 인사말 ▲본부 각 처 및 산학협력단의 주요 현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교육 우수 교수 대상 수상자로는 이기근 전자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교육 우수상은 ▲김승현(경영학과) ▲이혜경(영어영문학과) ▲정재영(기초교육대학) ▲이나리(영어영문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교육 우수 교수는 강의평가 결과 및 수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선발한다.

연구와 관련된 시상은 울곡상 및 다산상이 포함된 아주연구상,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 강래성 연구상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최상돈 생명과학과 교수가 아주연구상 울곡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유전자 백과사전'을 편찬, 2013년 제5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부문)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울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울곡상은 최근 2~3년간의 대표적 연구업적 중심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아주대학교의 연구역량을 널리 알린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아주연구상 다산상에는 손태식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장병윤 경영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높은 논문을 발표한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우수논문상은 2013학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실버/브론즈 1-2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했다.

저널 인용 관리 분석 데이터베이스인 JCR 카테고리 기준으로 상위 3%에 해당하는 논문을 발표한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실버 프라이즈는 김두현(분자과학기술학과), 김문석(분자과학기술학과), 남석현(생명과학과), 안영환(에너지시스템학과), 이성주(산업공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브론즈1 프라이즈는 상위 5%에 해당하는 논문의 저자에게, 브론즈2 프라이즈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의 저자에게 주어졌다. 아주 우수논문상 브론즈1, 브론즈2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 브론즈1 수상자

강경란(소프트웨어융합학과), 권오필(분자과학기술학과), 김동권(기계공학과), 김상욱(분자과학기술학과), 김재호(분자과학기술학과), 김형택(에너지시스템학과), 김환명(에너지시스템학과), 남석현(생명과학과), 박기동(분자과학기술학과), 신현정(산업공학과), 염동일(에너지시스템학과), 윤현철(분자과학기술학과), 이분열(분자과학기술학과), 이상민(에너지시스템학과)

◆아주 우수논문상(Ajou Publication Awards) 브론즈2 수상자

구형일(전자공학과), 김기홍(에너지시스템학과), 김두현(분자과학기술학과), 김상욱(분자과학기술학과), 김상인(전자공학과), 김성환(에너지시스템학과), 김주민(에너지시스템학과), 김환명(에너지시스템학과), 권오필(분자과학기술학과), 박명준(에너지시스템학과), 배형욱(금융공학과), 신치범(에너지시스템학과), 신현정(산업공학과), 안영환(물리학과), 염동일(에너지시스템학과), 이기근(전자공학과), 이기정(수학과), 이상민(에너지시스템학과), 이성주(산업공학과), 이종수(생명과학과), 이평천(분자과학기술학과)

한편 신설된 강래성상 수상자는 김동권 기계공학과 교수로 결정됐다. 이 상은 지난해 아주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한 세원ECP 강래성 회장이 매년 연구 실적이 우수한(최근 2년 기준) 부교수 이하의 젊은 교수에게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기로 함에 따라 제정됐다.



신임·퇴임 교수 소개

총 15명의 신임 교원이 아주대학교의 새 가족으로 합류했다. 2014학년도 1학기 임용된 교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한편 송용진 물리학과 교수와 정형식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지성 전자공학과 교수, 정인하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범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을 맞아 강단에서 물러났다.

〈신임 교원 프로필〉

- ◆ 주철환(문화콘텐츠학과)
고려대학교 박사(2002)/JTBC 대PD
- ◆ 박희준(약학과)
서울대학교 박사(2004)/CJ제일제당 제약 연구소장
- ◆ 김홍규(정치외교학과)
미시간대학교 박사(2002)/성신여대 부교수
- ◆ 최권영(환경공학과)
서울대학교 박사(2011)/UCLA 박사후과정
- ◆ 양희석(전자공학과)
서울대학교 박사(2010)/ETH 취리히 박사후과정 연구원
- ◆ 이상윤(물리학과)
서울대학교 박사(2009)/하버드대학교 박사후과정 연구원
- ◆ 백연정(경영학과)
메릴랜드주립대학교 박사(2012)/서울대 선임연구원
- ◆ 장예빛(문화콘텐츠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박사(2013)/강원대 전임연구원
- ◆ 김태봉(경제학과)
듀크대학교 박사(2011)/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원
- ◆ 박희준(에너지시스템학과)
미시간대학교(앤아버) 박사(2012)/인텔 연구원
- ◆ 홍성연(기초교육대학)
서울대학교 박사(2009)/아주대학교 대우조교수
- ◆ 이해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학박사(수료)/아주대학교 의대 진료조교수
- ◆ 박성용(의학과 흉부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학박사(재학)/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조교수
- ◆ 정남수(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학과 석사(2008)/아주대학교 의대 진료조교수
- ◆ 이기황(의학과 안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학박사(수료)/아주대학교 의대 진료조교수



구형건 교수, 한국금융공학회 회장으로 선출

금융공학과 구형건 교수가 한국금융공학회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한국금융공학회는 선물 및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연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모임으로 2001년 출범했다.

구형건 교수는 텍사스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재무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구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 포항공대 교수를 거쳐 지난 1999년부터 아주대학교 교수로 일해 왔다.

이범진 약대학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에 선출

이범진 약학대학 학장이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약교협 이사장은 전국 약대 학장을 후보로 선출해 왔으며 전임 이사장인 정진호 서울대 약대 학장이 학장직을 그만둔에 따라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범진 학장은 대한약사회 발간 기관지 약사공론으로부터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약사공론은 그동안 이 학장이 약사공론 필진으로 참여하며 여론을 선도하고 약학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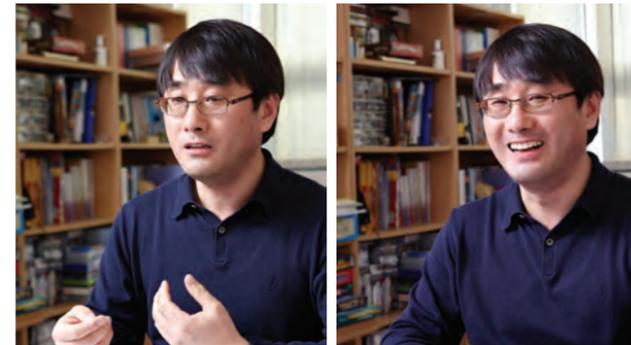


디지털 시대의 감성 치유법, 디지털 테라피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사업단’

단장 오규환 미디어학과 교수

정보화로 인해 오히려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다. 아주대학교 ‘디지털 테라피 융합인력 양성사업단’이 바로 그곳이다. 사업단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BK21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단 단장 오규환 교수(미디어학과)를 만나봤다.

글 이원규(편집실)



Q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7년간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업 선정의 의의는 무엇인가?

A BK21플러스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연구’다. 사업의 목표가 대학원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팀이 선정된 이유는 정부에서 우리가 디지털 테라피 분야의 연구 환경을 갖췄다고 인정해서다. 우리 사업단의 특이사항은 미디어학과와 심리학과가 융합하면서 예술을 하는 교수, 공학을 하는 교수, 인문학을 하는 교수와 사회과학을 하는 교수가 어우러져 다른 어떤 사업단보다 융합 연구를 위한 환경이 잘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아주대학교 학문의 방향이 ‘융합 학문과 실용 학문의 추구’이니 우리 사업단의 구성은 학교가 지향하는 바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Q ‘디지털 테라피’란 무엇인가?

A 기술이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반면에 마음은 더 소외되고 감성은 메마르고 있다. 마치 마음에 감기가 걸린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심리학과 디지털 미디어를 융합해서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정서를 치유하고,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를 ‘라이프 미디어’로 정의했다. 이 라이프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테라피’다. 과거에는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왔지만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진짜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병원을 찾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음악, 미술,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테라피’ 연구를 위해 미디어학과 심리학과가 힘을 합쳐 2014학년도부터 대학원에 ‘라이프 미디어 협동 과정’을 개설했다.

Q 두 학과의 융합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A 사업단을 꾸리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과 함께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교수들께서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앞으로 미디어가 가야 할 방향이고 심리학 역시 IT와의 융합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덕분에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사업단’의 탄생이 가능했다.

Q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심리 치유가 가능한가? 구체적인 해법은?

A 라이프 미디어에서는 인간을 가능한 한 디지털 환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탈디지털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컴퓨터나 휴대폰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주자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를 들고 야외에 나가 보물찾기를 한다든가 화분에 물을 주는 기계적인 장치를 하고, 이를 모바일 기기로 관찰하면서 제어하는 것처럼 기계 자체가 아이들이 자연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수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Q 앞으로 사업단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

A 올해 3월부터 BK21플러스 사업의 2차년도가 시작되었다. 미디어학과와 심리학과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학문적 융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부정적 감성을 가진 아이들을 치유할 기능성 게임에 관한 대학원생의 논문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융합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해외 교수의 강의를 영상으로 받아와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주중개연구센터, 기술의 가능성에서 실현까지 책임진다

글 정우준(홍보실)

아주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주중개연구센터(Ajou Translational Research Center, 이하 ATRC) 사업이 성공적인 첫 향해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공모를 받은 결과 총 8개팀이 지원, 이중 3개팀이 최종 선정되어 중개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선정 분야도 생명공학 분야(BT)에서 2개팀, 정보기술 분야(IT)에서 1개팀으로 다양하며 이 팀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총 1억7000만원 을 지원받는다.

아주중개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가 시장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개설행 기관이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실현 되도록 잠재력이 있는 유망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ATRC에 선정된 과제는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연결, 투자, 창업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컨설팅까지 제공받는다.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 연구비다. ATRC 사업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안정적인 연구비를 일정기간 보장받음으로써 기술의 산업화에 필요한 중개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다.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많은 기술들이 빛을 보는 빈도와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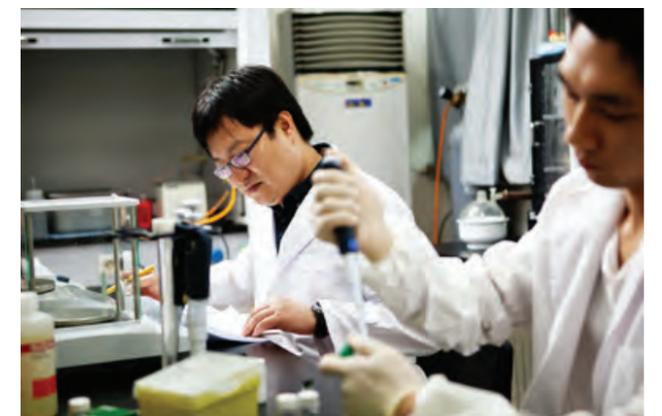
물론 ATRC 사업 이전에도 기술이전사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아주대학교는 지난 2011년 국내 대학 중 기술이전 수입료 부문에서 8위를 차지하는 등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분야 우등생이다. 옛비슷해 보이는 두 사업이지만 ATRC 사업의 시작으로 야기되는 차이점은 크다. 기존의 기술이전사업은 이미 완성된 특허기술들을 기업들에 이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문제는 기술이전이 가능한 완성기술들의 절대적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완성기술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기 어렵다는데 있다. 혹시 완성기술까지 다다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연구비 등의 부담은 교수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때문에 논문 그 자체로만 마무리된 연구결과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의 특성 상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가 적어 연구결과들이 단순한 학문적 결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연구결과가 산업화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 지원을 위해 발로 뛰어다니거나 현존하는 기술들과 접촉하는 등 기술개발 외적인 부분에서의 개인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ATRC 사업은 이런 현 연구 상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 점에 의의가 있다. 산업화 가능성 타진부터 산업화에 필요한 기업과의 연계, 투자 등 모든 요소들을 ATRC로부터 지원받는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하면 된다.

기술이 기업으로의 이전이나 창업 등의 방법으로 산업화에 성공하면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우선 교수 개인은 기술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며 동시에 발명자로서의 보상금도 받는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취득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아주대학교 또한 보유기술과 그에 대한 지분을 늘릴 수 있고 산업화 성공에 따른 수익도 확보하게 된다. 중개연구가 활성화되면 측정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 기여도가 생길 것은 분명하다.

ATRC는 ▲씨드(Seed)형 ▲매칭(Matching)형 ▲사업화형 3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세 유형 모두 사업화 자문,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공간제공 등의 혜택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씨드형은 모든 연구비와 각종 지원을 아주대학교가 100% 부담하는 유형으로 매년 7월과 12월 연2회 정기적으로 공고를 내고 사업선정을 한다. 매칭형은 정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외부 지원 금액의 2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를 아주대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씨드형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공고형태의 선정방식과 외부기관과의 협약형태 등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화형은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기술로 수입이 발생한 과제 중에서 기술이전 기업의 추가 사업화 연구 요청이 있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기술 이전료 규모에 비례하여 연구비를 결정한다.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ATRC 구성원과 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설명회 또는 교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선정과제 수행 책임자의 정기적 기술개발현황 발표회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중개연구센터의 문을 두드린 지원과제는 ATRC 센터장을 비롯한 총 9명의 교내의 전문가들의 심사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실용화 가능성, 연구역량, 기술성 그리고 연구계획의 우수성이 평가항목이다. 평가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실용화 가능성'으로 여기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중에서도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다. 또한 연구자의 과거 실적에 따른 연구역량에 대해서도 20% 가중치로 평가한다.

ATRC는 아주대학교 연구처 소속의 특성화 연구기관으로서 김재호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이 ATRC 센터장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재호 센터장은 "아주중개연구센터는 준비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아주대학교의 핵심연구지원 사업"이라며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해 사업이 시작된 만큼 향후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렘 가득한 아주의 입학식

40여년의 세월동안 아주대 캠퍼스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 설렘으로 가득 찬 입학식이 그 중 하나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두근거림, 그 떨림의 무게는 다르지 않으리라. 체육관에서 진행된 2014학년도 입학식 모습과 함께 아주대학교 개교 초기 입학식 풍경들을 소개한다.



1 인재환 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입장하고 있다.

2 인재환 총장의 입학식사. 안 총장은 "아주 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신입생 대표가 인재환 총장에게 입학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7 1985년 입학식이 열린 노천극장의 풍경. 멀리 현 성호관이 보인다.

8 1984년 입학식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신입생 대표의 선서를 받고 있는 나옹배 총장.

9 아주공업초급대학 시절 열린 입학식 모습. 행사는 원천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1973년 아주공업초급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279명이었다.



4 신입생들의 입학선서 모습. 아직 앳된 얼굴의 새내기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5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열린 합창단 글리의 축하공연 모습

6 체육관에서 열린 2014학년도 입학식. 신입생들은 본행사 시작 전 교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동아리 '5분 심포와 '센토'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10 산상교회에서 열린 1977학년도 입학식 모습. 1973년 280명이었던 입학정원이 1977년에는 600명까지 늘어났다.

11 신입생을 환영하는 현수막. 당시 정문은 지금의 아주대학교 삼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12 1978년 입학식을 앞두고 눈이 내렸다. 오고 가는 행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Ajou univ. news

_Award & Selection



‘아주 위대한 고전’, 대교협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아주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정 '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교협은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접수 받아 3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아주대학교는 '아주 위대한 고전 사업 컴퓨터 기반 확산형 프로그램'으로 상을 수상했다.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은 학생들이 고전을 폭넓게 읽고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위대한 고전 해제집 출간 ▲아주 위대한 고전 경연대회 ▲브라운 백 렉처(Brown Bag Lectures) 등으로 구성된 '아주 위대한 고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주 위대한 고전 해제집은 아주고전위원회에서 아주대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고전 100선을 선정, 작가에 대한 설명과 작품 해설 등을 담아 구성한 책이다. 아주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집필을 담당해 왔다. 또한 학생들이 아주 위대한 고전 해제집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classic.ajou.ac.kr)를 구축해 두고 있다.

브라운 백 렉처는 매주 화요일 정오에 고전 해제를 집필한 교수들을 모시고 학생들과 함께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갈색 봉투에 들어 있는 간단한 점심과 함께 자유로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브라운 백 렉처라는 이름이 붙었다.

e-비즈 윤경환·전재연 'Go Green in the City' 공모전 한국 예선 1위

e비즈니스 학과 윤경환(07학번), 전재연(12학번) 학생이 에너지관리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주최한 '고 그린 인 더 시티(Go Green in the City)' 공모전 한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두 학생은 한국 예선 1위의 자격으로 올 4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 결선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상금 400만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올해는 31개국 대학생들이 2명씩 팀을 이뤄 참가했다.

윤경환·전재연 학생팀은 '그린 파이터(Green Fighter)'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모델은 스마트 그리드와 사물 인터넷을 이용,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 플랫폼이다.

아시아 지역 결선에서 우승할 경우 올 6월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전세계 상위 12개팀과 최종 결선에서 맞붙게 된다.

경영대학, 한국경영교육인증 받아

경영대학이 한국경영인증교육원으로부터 경영교육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번 인증은 2009년에 이은 두 번째이며 2018년까지 유효하다.

한국경영인증교육원은 경영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학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 대학의 경영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학부 과정만 심사했던 지난 2009년과는 달리 이번 인증부터는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까지 포함한 통합인증을 실시했다. 인증은 경영대학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실사단의 파견 보고서를 인증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하여 무효, 2년, 5년으로 인증을 차등 결정했다. 아주대학교는 국내 5번째로 통합인증을 받았고, 최고등급을 받은 셈이다.

이번 통합인증 대상은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다. 금융공학과는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학교육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산하 다문화한국어교육센터가 2014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원시 일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 이민자와 해외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다.

어학교육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학교육원은 그동안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조교사 양성 과정 ▲엄마와 함께 하는 문화 여행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실시해왔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2년 연속 '우수'

아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간 전국 65개 대학을 선정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매년 산업체 관점으로 실시되는 연차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사업비 추가 지원과 사업 중단 대학 선정 등을 결정한다.

2012년 3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유치한 아주대학교는 최장 10년 동안 매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도 매년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산학인턴십, 산업시찰 등을 강화하고 인문·미디어·예술·연구·기술을 융합한 신규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는 SMART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여성가족부 공모 총괄 운영기관에 선정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김혜선 교수)가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2014년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총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전국 단위의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을 개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23개 프로그램 지원 대학 등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3년부터 성차별적 취업 현실과 경력 단절 등 여성 취업의 구조적 장애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대생커리어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사업 첫 해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올 한해 ▲사업 관계자 간 정보 교류 활성화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단위 공동 워크숍 및 심포지엄 진행 ▲글로벌 청년여성포럼 ▲전국 여대생커리어 개발 서포터즈 활동 주관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jou univ. news

_Event



2014학년도 입학식 개최

2014학년도 입학식이 2월24일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열렸다.

박영동 교무처장의 학사보고와 안재환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의 입학선서 순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안재환 총장의 입학식사와 주한 프랑스 대사의 축사로 마무리됐다.

신입생들은 행사 시작 전 교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입학식 본 행사에 이어 김창옥 동문(대전 MBC 사장)의 특강, 동아리 '5분섬표'와 응원단 '센토'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안재환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안 총장은 이어 "아주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로 인해 아주대학교 또한 한걸음 더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특강 ▲학과별 학부모-교수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민규 심리학과 교수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주제로 종합관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학과별 학부모-교수 간담회는 각 학과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열렸다.

한편 신입생들은 입학식 당일인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배치고사를 치렀다. 전체 신입생(약학대학 제외)이 응시해야 하는 배치고사는 영어 및 기초 과학 과목(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한해 실시된다.

아주대학교는 신입생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 과목 배치고사를 치르고 있다. 배치고사 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필수 교과목인 영어, 수학, 물리학 등의 수준별 반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 총장은 "연구역량 향상,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대학 구조조정,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할 인사제도 개선 등 2014학년도에도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각 실무부서에서는 '아주비전 2023' 39개 항목의 액션플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자 워크숍 개최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관리자 워크숍이 지난 1월16~17일 양일간 강원도 쏘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안재환 총장, 소의영 의무부총장, 유재석 대학원장 및 각 처장, 학교 및 의료원 관리자 67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한호 입학처장의 감성리더십에 대한 특강 ▲학교와 병원의 유관분야-교무, 연구, 총무, 구매, 시설, 홍보, 전산-의 분야별 토론 결과 발표 ▲설악산 산행 및 낙산사 문화 탐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재환 총장은 워크숍 첫날 인사말을 통해 참석하신 교직원들에게 언론의 대학 평가, 취업률, 대학특성화사업에서 아주대학교가 약진한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 총장은 또 인조잔디구장 준공, 박물관 개관, 국제학사 기공, 명성황후 공영 개최 등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사업들의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아주대학교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21일 오후 2시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은 인원은 학사 2182명, 석사 380명, 박사 125명이다.

학사 학위의 경우 2014년 2월 졸업자가 1454명, 2013년 8월 졸업자가 728명이며 석사 학위의 경우 2014년 2월 졸업자가 262명, 2013년 8월 졸업자가 118명이다. 박사 학위 수여자는 2014년 2월 졸업이 76명, 2013년 8월 졸업이 49명이다.

졸업식은 박영동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안재환 총장의 학위수여식사, 시상, 학위수여의 순으로 이어졌다. 공과대학의 이관우 학생을 비롯해 9개 단과대학에서 총 9명의 학생이 성적우수상을 수상했고 대내외 실적 우수상, 대내외 활동 우수상이 각 4명의 학생에게 주어졌다. 간호대학 원숙영 학생과 인문대학 추동하 학생은 각각 총동문회장상, 주한프랑스대사상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안재환 총장은 "우리 졸업생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녹록하지 않은 않다"며 "하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1월24일에 제3회 학위수여식을 열었고 교육대학원은 2월19일, 공학대학원은 2월20일, 경영대학원은 2월22일에 졸업식을 진행했다.

▲총장상

〈성적우수상〉

*공과대학 이관우 *정보통신대학 권효정 *자연과학대학 김원태 *경영대학 이상겸 *인문대학 신원철 *사회과학대학 이현기 *법과대학 연형진 *의과대학 조수연 *간호대학 백초원

〈대내외 실적 우수상〉

*공과대학 김영태 *정보통신대학 박현주 김동진 *자연과학대학 강예원

〈대내외 활동 우수상〉

*공과대학 정경철 *경영대학 손종진 *인문대학 남정민 *법과대학 권현정

▲총동문회장상 간호대학 원숙영

▲주한프랑스대사상 인문대학 추동하



신임교원 연구세미나 및 교무위원 워크숍 개최

신임 교원 연구 세미나 및 교무위원 워크숍이 지난 2월18~19일 포천 아도니스리조트에서 열렸다.

임용된 지 3년 미만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교원 연구 세미나는 서로 연구 분야가 다른 각 분야 교수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됐다.

안재환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신임 교원 20여명의 관심 분야 발표 및 질의 응답, 김문식 보건대학원장의 '와인 이야기' 특강, 관심 연구 분야 별 자유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에는 교육 미디어학과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특강', 연구처장 주관 연구력 제고 관련 자유 토론, 총장과의 대화 및 총평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신임 교원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교무위원 워크숍에서는 각 단과 학장들이 2014학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201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던진 말이다.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조선, 항공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며 관련 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아주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이정태, 강경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이정태, 강경란 교수
진행 이 슌(홍보실)
정리 편집실



이정태__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1988)
연구분야: 역할 기반 분산 시스템 모델



강경란__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박사(1999)
연구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 소프트웨어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정태 '소프트웨어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더 이상 특정 분야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 정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회의 '인프라'입니다.

강경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육성으로 진행하던 아파트 안내방송이 최근에는 음성 합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여기에는 언제든 입력만 해주면 원하는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용되고 있겠지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버스카드의 태그, 스마트폰 알람, 자동차 내비게이션 모두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말씀인데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되리라 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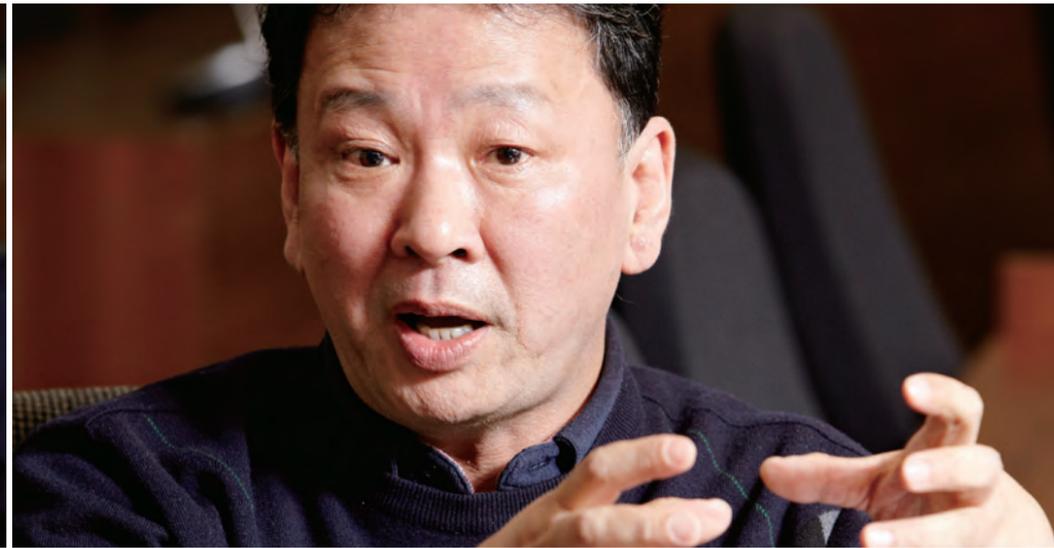
강경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컴퓨터는 컴퓨터 전공자들만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회사 사무실에서 모두가 컴퓨터로 네트워킹을 하고 모바일 폰 네트워크가 이뤄지면서 이동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모든 기기들에 컴퓨팅 능력이 생기면서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도 발달해 왔어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빠르게 계산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한층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 전, '모델링'을 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령 자동차를 만들기 전 다양한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미리 설계한 뒤 효과를 분석하기도 하고, 값비싼 무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정태 현재는 초기단계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물 통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봐야죠. 사물 통신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사물)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물과 사물이 대화하고,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창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너 그렇게 달리면 미끄러진다' 혹은 '충돌할 것 같으니 좀 피해줄래?' 이런 식으로 다른 자동차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와 도로, 또 자동차와 신호등도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사물 통신은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다만 경제성의 측면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요.

- 소프트웨어의 쓰임새가 이토록 다양하고 응용방안의 폭 역시 넓은 데도 관련된 공부를 한 인력들은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반면 기업들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정태 현재 기업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된다 하고, 말 그대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산업적으로 이를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기술적인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기업은 그



리한 인재를 뽑고 싶지만 찾을 수 없다고 하지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틀 자체가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의 속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산업기반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하면 3D라고 폄하하는 인식도 있고요. 하루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이뤄져야 해요. 판 자체가 다시 짜여져야 합니다.

강경란 오피넷이나 쉐넛 같은 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프로그램 당 수 억 원을 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내가 만들고, 그 가치를 직접 정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주로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관공서나 기업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그 가격도 고객이 책정하니 열악한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산업시장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낮은 기술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 노동착취적 산업으로 변질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후자에 더 가까워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 두 시장이 공존하면서 발전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 소프트웨어는 사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소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람에 대한 직관과 통찰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개발자로서의 전문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과 높은 기술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는 당연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동차면 자동차, 항공기면 항공기 등 특정영역(domain specific)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려면 일정기간 동안의 경험과 희생이 필요하겠지요. 창의성도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제대로 발휘되니까요.

강경란 아주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서울어코드사업 선정을 통해 시작되었는데요. IT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서울어코드사업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인문학, 경영학적 소양과 소통 능력 함양이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발표와 토의', 'IT 글쓰기(IT Technical Writing)', '기술과 경영', '문화의 변천'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기본 소양을 갖춰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가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경란 요즘은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전공자를 위한 교육과는 또 다른, 가벼운 내용의 소양교육이지만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크다고 하지요. 저는 학생들에게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www.scratch.mit.edu)'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게임처럼 놀 듯 푹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중·고교에서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입시교육에 바빠 이러한 소양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당연하듯 프로그램 언어도 공부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조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오겠지요.

이정태 공과대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그리고 초중고교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전공 전문가들과 사회과학자, 교육학자 등이 모여서 함께 연구해야 해요.

- 아주대 학생들에게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강경란 제가 2학년 강의로 '소프트웨어융합 프로젝트 입문'을 진행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엔지니어링 절차, 접근방법론 등을 가르칩니다. 주로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게 되지요.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정태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은 창의성은 무의미해요.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전문 지식이 부재한 아이디어는 그 아무리 기발하더라도 아이디어로만 끝나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도 전문성을 확보할 때까지 자신의 역량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내하세요.

Ajou univ. news

_Medical Center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취임식이

유희석 제11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식이 3월11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소의영 전 의료원장의 이임식을 겸하여 열렸다.

이 취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원희목 보건복지개발원장, 손명세 중앙심사평가원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추호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안재환 아주대학교 총장, 지훈상 분당차의과대학병원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의료원 개원 20주년에 이러한 중책을 맡은 이유는 전임 보직자들께서 만드신 훌륭한 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수립하려는 엄중한 소명을 받은 것"이라며 "의료원의 제2 도약을 위해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한편 수립한 장단기 발전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먼저 진행된 이임식에서 감사패를 받은 소의영 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 10여년간 과분한 보직을 맡아 누린 영광과 해택을 외고 교수로서 열심히 일하며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유희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7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옥포대우병원 산부인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제임스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을 거쳐 아주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로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아주대학교의료원장을 겸직하게 됐다. 대외적으로는 국제부인암학회 정회원, 미국 부인암학회 정회원 및 학회지 편집위원, 아시아부인종양학회 2015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3월3일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지하층 아주홀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되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10개를 추가로 확충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2월 1일 1차로 5병상, 이번 개소식에 맞추어 2차로 5병상을 개설함으로써 총 36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 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도 사업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박문성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은 "그동안 아주대학교병원 신



생아집중치료실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산 전후의 고위험 신생아와 산모의 응급진료를 맡아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 남부권역 내 신생아 집중치료를 더욱 안전을 기할 것이고 나아가 신생아 집중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장암·유방암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

아주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적정성 평가에서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 1등급에 이어 대장암 수술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2013년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구성, 수술 과정의 적정성, 입원일수, 진료비 등 20개 항목을 조사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유방암 적정성 평가지표에서 97.0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유방암 수술(부분 및 전체) 비용과 재원일수 등 여러 항목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1등급에 선정되었다.

유방 부분절제술의 경우 전국 동급 병원 평균 수술 비용이 219만원, 재원일수는 6.8일인데 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수술 비용이 110만원이 적은 109만원, 재원일수는 3.6일이 적은 3.2일이었다. 유방 전체절제술의 경우 전국 평균 수술 비용이 313만원, 재원일수는 8.8일인데 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수술 비용은 65만원이 적은 248만원, 재원일수는 3.3일이 적은 5.5일로 짧은 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2012년 한 해 동안 수술 건수가 10건이 넘는 전국 135개 병원을 대상으로 대장암 환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했으며,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진료 과정 부문, 진료 결과 기록 등 모두 22개 지표를 평가했다.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종합점수는 평균 89.97점이며 아주대학교병원은 98.16점을 기록, 월등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 아주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는 중증의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사망률 0%로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여주며 대장암 수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구 노령화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과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유방암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대장암과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시험 기관 평가 'A등급' 획득

아주대학교병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차등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도입한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건수가 많은 병원 등 43곳을 대상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163개 중 1차로 43개 임상시험 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총 28개 기관이 우수한 'A' 등급을, 15개 기관은 보통인 'B' 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 항목·주기를 차별화하는 사후 관리 제도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년마다 1회 수행 능력을 점검받게 되며, 보통인 B등급은 3년에 1회, 미흡인 C등급은 연 2회에 걸쳐 수행 능력을 점검받는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임상시험센터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관련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외과대학 부속병원장 일행, 아주대학교병원 방문

베트남 하노이외과대학 부속병원장 일행이 3월13일 오후 1시30분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가족사업-베트남 연수사업'을 협의하는 일정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방문단은 하노이외과대학 부속병원장 하 반 꾸엣(Ha Van Quy)을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이날 하노이외과대학 부속병원장 일행은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병원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식에서 하 반 꾸엣 하노이외과대학 부속병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속적으로 하노이외과대학의 젊은 의료인에게 첨단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따뜻했던 2014 겨울, 한 뼨 더 자란 나를 만나다

16인의 아주대학교 해외봉사단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태국 상카부리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버스로 8시간을 가야 하는 오지 마을, 험한 정글로 둘러싸여 있어 우기에는 진입조차 어려운 상카부리 지역에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몸은 힘들지만 맘은 더없이 풍요로운 12박14일을 보냈다.

봉사단은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1월27일 태국으로 떠났다. 상카부리 지역의 후웨이콕과 파라이농 학교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미술·체육 등의 교육 봉사를 진행했고 태권도, K팝 댄스, 부채춤 등을 소개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도 열었다.

이상국 교수(사학과)가 지도교수로 학생들과 동행했고, 국제구호 NGO 월드쉐어도 함께 참여했다. 해외봉사단 아주다소니¹⁾의 주축인 세 명의 단원, 임수혁(정치외교학과 08학번)·박잎푸른(e-비즈니스학과 10학번)·김건영(신소재공학과 10학번)학생을 통해 따뜻했던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다소니는 순수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아주대학교 해외봉사단의 이름 아주다소니는 '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임수혁

정치외교학과



봉사단 팀장으로서 무사히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봉사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준비 기간 한 달과, 태국에서의 2주가 제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따뜻함을 느꼈던 매 순간 우리 팀원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모두의 표정을 통해 알았습니다.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이들과 마주했던 날, 가슴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신발 없이도 신나게 뛰어놀고 피아노가 없어도 재미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동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도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었지요. 태국에서의 하루 하루는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20년 후 모두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가자고 약속했죠. 지금도 아이들의 얼굴과 미소가 떠오르네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박잎푸른

e-비즈니스학과



태국에서 아이들과 만나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었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지요. 나를 이렇게나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 봉사단 친구들과 교수님, 간사님들과 만난 것도 커다란 행운입니다. 준비 기간 한 달과 태국에서의 2주를 매일같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와 웃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힘든 일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취업 준비를 앞둔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의 나보다 한 뼨 더 성장한 내가 된 것 같아 행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김건영

신소재공학과



귀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태국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씻고 잠들 때까지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아요. 그곳 아이들을 볼 때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할지 모르지만 참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 힘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독려했지만,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글로 구호물자를 보급하려 갈 때마다 지구촌에는 여전히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 너무도 바쁘게 사는 한국인들의 일상과 달리 여유 있게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단원들과 교수님, 간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흠집을 데 없이 좋은 사람들! 함께 했던 분들 모두와 평생토록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고전에서 질병을 읽다

최영화__ 교수(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문학은 언어를 제재로 삼아 인간과 사회를 묘사하는 예술이다.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생, 사회의 흥망이 그려진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질환과 감염병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책 읽기 좋아하는 어떤 의사는 이런 이야기들에 화색을 띠며 질병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들려줄 수도 있을 터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소식지에 4년째 메디컬 칼럼 <책과 감염병>을 연재하고 있는 최영화 교수를 만나 문학과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원규(편집실)

사스(SARS), 에이즈, 결핵 같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며 의술을 베푸는 사람. 대한민국에 150여 명밖에 없는 감염내과 전문의 중 한 사람. 그리고 문학 작품에 나오는 감염병에 대해 해설해 주는 사람.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과장 최영화 교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감염 질환' 전문의다. 최 교수의 진료 분야는 원인불명 열, 에이즈, 해외풍토병, 여행자예방접종, 감염질환이다.

요즘에는 암이나 사고, 각종 성인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문학 작품 속의 등장인물, 최 교수는 그 속에 묘사된 환자의 증상을 통해 병을 추론하고 삶을 붙여 이야기를 풀어낸다.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과거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에서 최근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매개체라서 끈질겨요. 완벽하게 없애줄 수도 없어요.”

기자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을 하는 최 교수의 모습에서 '환자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그려진다. 그러한 모습을 '깡디드 또는 낙천주의'를 소개했던 칼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구절이다.

뭘 도와드릴까요? 열이 나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는지 할머니는 말만 공공대고 병명은 입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할머니, 뭘 그 정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뭘 책을 읽어 드리면서 그 병이 이런 병이고 그런 병이어서 그런 일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 위아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흔한 일이라고 훌훌 털어버리시라고 말씀드리지만, 할머니에겐 그저 속 모르는 의사가 남 일이라 그러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가 자주 있는지 물으니 자주 있는 일이면 이야기꺼리도 되지도 않았을 거라며 손사래를 친다.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에이즈 환자도 많아요. 그들은 진료 받

으러 오면 자기 이야기를 못물 터지듯 꺼내놓지요. 드러내놓을 수도 없는 병이니 어디서 하소연할 곳도 없는데, 제게 오면 그런 얘기들 다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한다.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니 안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여고생 시절, 최영화 교수는 문학과 역사에 꿈을 두었다. 그러나 큰언니의 강권으로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 그때 큰언니가 골라서 보내주었던 책이 '인턴 X'와 '성채'라는 의학 소설. 그 책들을 읽고 의사가 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이게 바로 문학이 가진 힘일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 계기는 추리소설이었다. 최 교수가 술술 풀어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이렇다. 홈즈의 친구인 의사 왓슨이 인도에서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병에 걸려 영국으로 송환되었는데, 그 병이 장티푸스였다. 왓슨은 장티푸스를 '저주스러운 인도인의 병'이라고 불렀고 수개월간의 휴양이 필요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당시에는 장티푸스의 치료법이 없어서 자연 치유되도록 휴양을 했지만 이제는 좋은 항생제가 개발되었고 덕분에 환자도 뜸해졌다고 한다.

진료하기도 바쁠 텐데 독서할 시간은 어떻게 벌까? 우문에 현답이 돌아왔다.

“책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읽으려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힘들지 모르지요. 늘 책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읽습니다.”

책을 고르는 기준은 뭘까? 최 교수는 신문의 신간소개나 서평에서 정보를 얻고 포털사이트에 소개되는 명사의 서재 같은 코너도 눈여겨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변에서 감염병이 등장하는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니 오랫동안 칼럼을 연재하면서 두터운 팬 층을 확보했다는 방증이라.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이야기. 이번 인터뷰는 최 교수의 진료실, 연구실,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하다.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이야기. 이번 인터뷰는 최 교수의 진료실, 연구실,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하다.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이야기. 이번 인터뷰는 최 교수의 진료실, 연구실, 그리고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하다. 환자를 돌보는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최 교수의 진료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차분하다.

Ajou univ. news

_그외 소식

안재환 총장, 프랑스 대학들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안재환 총장이 지난 2월2일부터 2월9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해 현지 대학들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병관 대외협력처장, 윤정용 국제협력팀 과장이 동행했다. 오수기 불어권협력지원센터장, 송봉섭 기계공학과 교수도 일부 행사에 참여했다.

안 총장은 ECE 파리(ECE Paris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에콜 센트럴 낭트(ECN, Ecole Centrale de Nantes), 오덴시아 낭트 경영학교(AUDANCIA Nantes Ecole de Management), 낭트 대학(University of Nantes), 파리 13대학(University of Paris)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주대학교는 ECE 파리, 에콜 센트럴 낭트(ECN)와 신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고 낭트 대학과는 협력확대 의향서를 체결했다. 오덴시아 낭트 경영학교 및 파리 13대학과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재환 총장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관계자들은 낭트 시장을 방문, 낭트 시장과 면담하고 낭트 시 소재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2월3일 저녁 에콜 센트럴 낭트(ECN)에서 열린 만찬에서 안재환 총장은 아주대학교 설립 초기 양교 협력을 주도했던 이 학교 전 교수진 5명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불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아주대학교는 과거 ECN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ECN 소속 교수들은 1970년대 아주대학교에 파견되어 불어 및 전공 교육을 맡은 바 있다. 이날 만찬에는 과거 아주대학교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교수들과 프랑스 현지에서 파불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수들이 참석했다.

국제대학원, 수원시와 장학 지원 프로그램 MOU 체결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수원시 국제교류센터가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측은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3월20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임재익 국제대학원장과 권혁표 국제대학원 팀장,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신윤범 센터장, 천원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은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2개국 15개 도시의 우수 인재를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의 자매 도시에서 인재로 추천, 선발된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수학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학생들에게 일부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는 국제경영학, 국제통상학, 국제개발협력학, NGO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아주-수원 석사과정 장학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첫 입학생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14학년도 아주멘토 프로그램 발대식

기초교육대학(학장 김태승)이 '2014학년도 아주멘토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학생들 중 선발된 멘토 93명은 이날 발대식에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멘토 활동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멘토들은 향후 한 학기 동안 1261명의 신입생 멘티들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멘토와 멘티의 연결은 멘토들이 작성한 '멘토 활동계획서'를 멘티들이 보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활동 결과에 따라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비교과 활동 마일리지 가 부여된다.

김태승 기초교육대학장은 "사람이 바로 문화이며, 그런 측면에서 멘토활동은 또 다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멘토로서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을 잃지 말고 멘토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대사 아우라 수료식

1월21일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AURA(Ajou University Remarkable Ambassador) 수료식이 열렸다. 4학기 이상 아주대학교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10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홍보대사 4기로 활동해 온 박소영(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비롯해 김광진(정보컴퓨터공학과), 김경미(e-비즈니스학과), 조남희(경영학과), 김영희(e-비즈니스학과), 제민규(미디어학과), 김경주(미디어학과), 이진욱(경영학과), 원누리(경제학과), 김희주(경제학과) 학생이 이날 수료증을 받았다.

안재환 총장이 수료식에 참석해 직접 수료증을 전달했다. 안재환 총장은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자산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공식 홍보대사 임무는 마쳤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아주대학교의 '얼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언제 어느 곳에건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광운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 저명 교수'

경영학과 김광운 교수가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고 삼일회계법인인 후원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뽑혔다.

한국회계학회는 연구·봉사·저술 세 분야에서 저명교수를 뽑는데 김광운 교수는 봉사 분야 저명교수로 선정됐다. 회계학회는 회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한 현지 교수를 이 부문 저명교수로 뽑아왔다.

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연구 분야)와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저술 분야)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일회계법인은 저명교수 3인에게 매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정연구원과 업무협약

아주대학교와 수원시정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식이 3월19일 오후 2시 울곡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측은 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 인력, 학술 정보, 시설 등의 활용과 연구사업 진행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앞으로 교육과 연구, 학술 활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연구, 지역 단위 정책 개발 및 수립, 미래 비전 제시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행복을 찾아서...

통합로그 분야 국내 최고 기업 이너버스를 이끌고 있는 이을석 대표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89학번이다. 이너버스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회사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나 매출 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12년 간 한우물만 판 끝에 마침내 본인의 회사를 업계 선두 반열에 세운 이을석 동문을 만나 취업과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글 정우준(홍보실)



이을석_ 동문(전자공학과 89)

● 이너버스가 10년 넘게 판 '로그'란 우물은 무엇인가?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들을 바로 '로그'라고 부른다. 마치 비행기록을 저장하는 비행기 블랙박스와의 같은 이치다. 법적으로도 로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로그에 관련된 관심과 중요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흔적의 양이 엄청나 분석을 위한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너버스는 바로 이 로그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이너버스는 매출 100억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 또한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시장을 야심차게 공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 국내 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계속 두드려다 보면 열릴 것이라 믿는다.

● 회사 내부 공간들이 통유리로 구분되어 있고 회의실에는 전자기타와 엠프 그리고 지난 체육대회 때의 사진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인가?

재학시절 미술동아리인 '아미(AMI)'에서 활동했는데, 그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 젊은 분위기를 항상 유지하고 싶어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벤처 회사들은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데, 딱딱한 한국식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회식도 국내의 여느 회사처럼 앉아만 있는 분위기가 싫어서 지난 송년회 때는 스탠딩파티를 열었다. 쉽지는 않지만 형식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다.

● 국내 최고의 대기업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박차고 나온 이유를 알고 싶다. 두렵지 않았나?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갔지만 2년여 만에 퇴사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정리하고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서. 큰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성취감이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대기업을 그만두고서 직원 20여명 규모의 작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다.

사람은 다 어떻게든 먹고산다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고, 젊은 시절이어서 두렵지는 않았다. 다행히 퇴사 후 들었던 작은 회사는 달랐다. 내가 가진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었고 엔지니어, 경영, 영업, 지원업무까지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었다. 뭐든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되기 마련이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버틴 결과로 이렇게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웃음).

● 아주대 학생들은 대기업 취업에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경험자로서 생각이 남다를 거 같은데?

많은 후배들이 대기업 취업에만 목매고 있는 현상, 그리고 대기업 취업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기업 취업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완성된 조직에서 부여된 역할만 할 수 있었다. 반면 부족해 보였던 작은 회사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일원이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너버스는 항상 부족한 조직이길 바라고 직원들도 이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껴주길 희망한다. 후배들에게는 직장을 구하기보다 직종을 선택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직장은 말 그대로 간판이다. 간판 있는 대기업에서 하루 종일 도장 찍는 일만 하면 행복하겠는가? 반면 직종을 선택하면 어디서든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직종의 전문가가 된다.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닌 이상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창업이 행복에 유리한 조건인가?

모두에게 창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창업의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분야는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실히 대기업 취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피하라는 이야기다. 창업,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일이라 생각한다. 단, 그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직종에 취업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 후배들이 '어떻게 할지'보다 '뭘 하면 행복해질까'를 고민하길 바란다.

그래서 영CEO포럼(Young CEO Forum)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창업한 10여명의 후배들과 정기적으로 교류도 가지고 있다. 고민을 들어주고 각종 유사한 경험들을 이야기 해주는 정도다.

● 창업한 후배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나?

사업이 다 잘되면 좋지만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젊을 때 경험은 매우 값지다. 창업이라는 것은 배낭여행과 같아서 패키지 여행과는 다르다. 패키지 여행은 밥 굶을 일이 없지만 배낭여행은 한두 끼 굶는 일이 허다하다.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그냥 과정이라 생각하고, 목표만 생각하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한다. 목표는 물론 행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대학교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기초의학 연구에 매진해 온 주일로 교수(의과대학 약리학교실)가 지난해 말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주일로 교수는 지난 1993년 아주대학교에 합류, 의과대학과 아주대학교병원의 태동과 성장을 함께 해 온 주역 가운데 하나다. 그를 만나 연구자로서의 보람과 포부, 그리고 아주인으로 지내온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슬(홍보실)

주일로__ 교수(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다른 길을 걷다

주일로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의사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병원 진료실이 아닌 의대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도 청진기와 차트가 아닌 논문과 각종 서류다. 주 교수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일찌감치 진료보다는 연구에 흥미를 느꼈고 임상 의사가 아닌 연구자, 즉 '의사과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자의 길, 임상 의사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료들을 보며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9번의 실패를 상쇄하는 1번의 성공, 그리고 그때의 성취감이 그를 연구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집념의 결실이 바로 '아주대학교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다.

아주대학교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이하 센터)¹⁾는 2003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기초과학 연구센터(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로 지정되어 9년 동안 약 6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MRC는 정부가 국내 의대, 한의대, 치대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와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1기 연구센터 종료를 앞두고 아주대학교 센터는 2기 사업에도 지원,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1기 참여 대학 중 유일하게 1기에 이어 2기 사업 지원까지 받는 쾌거를 올렸다. 그간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또 다시 약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셈이다. 기초 의학 연구자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 교수에게도 2기 재선정은 그의 연구 인생에 큰 의미를 지닌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늘 ‘새로운 것’과 접해야 하는 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몇 번의 갈등과 고비가 있었죠. 기초의학 연구자 대부분이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갖게 되는 임상 의사 동료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연구자의 길이 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제가 걸어온 길에 만족합니다. 특히 우리 센터가 1, 2기 MRC에 선정되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덕분에 저는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일을 초조하지 않게 해 줄 수 있었죠.”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 교수가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1억원이라는 큰돈을 기부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기초의학 연구자로서 연구비에 애매하지 않고 본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그 터전이 되어주었던 아주대학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던 차, 마침 지난해 아주대학교 봉직 20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기부’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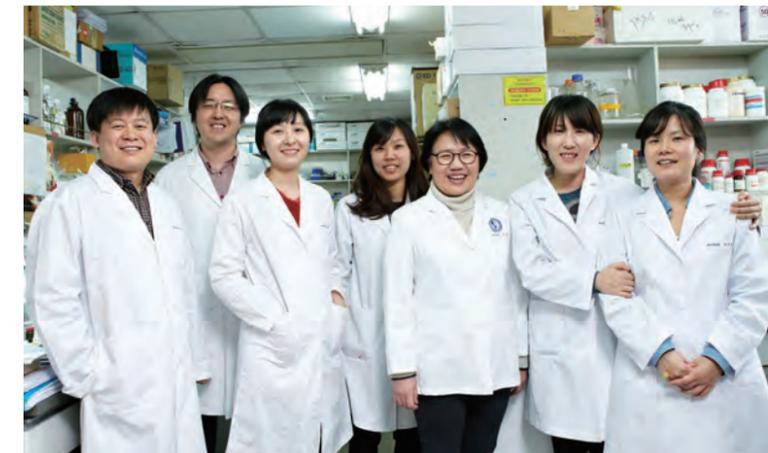
“기부를 결정하고 여러 생각을 했지만, 역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 아주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만은 돈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임 교수로는 1993년 합류했지만, 주 교수는 1990년부터 아주대학교 의대에서 강의를 했다. 부속병원도 의대 전용 건물도 없던 시절, 그는 연세대학교 의대의 지원을 받아 실습 장비를 직접 차에 싣고 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지도했다. 변변한 실습실도, 전용 강의실도 없었지만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에게는 늘 꿈과 희망이 있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의과대학, 그리고 병원을 만들자는 큰 꿈이 있었어요. 물론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침이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늘 희망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보고 달려왔지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에요.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기부를 계기로 한 인터뷰가 속스럽다며 손사래 치던 주 교수, 의과대학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눈빛에는 애정과 관심이 듬뿍 묻어났다. 그렇다면 이제 막 첫발을 댄 2기 센터에 대해 그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2기 센터는 1기에 비해 젊은 교수들의 참여가 늘었고 논문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더 큰 바람이 있다면 2019년까지 환자 치료에 실제 적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우리 센터가 연구에 매진한 16년 동안 기초 연구에서 시작해 실제 임상적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 훌륭한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 아주대학교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는 염증 반응이 암, 당뇨,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생화학, 면역학, 약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만성질환의 병태생리를 규명하고 염증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인자와 타깃을 찾고 있다. 센터에는 교수 15명과 석·박사 대학원생, 연구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Ajou univ. news _Donation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열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 2월20일 오후 울곡관 로비에서 열렸다. '명예의 전당'에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아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500만원 이상을 쾌척한 기부자 342인(기관 포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제막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황필상 박사(구원장학재단 설립자), 수원사랑장학재단 광상현 사무국장, 학생지원팀 박일분 팀장, 안병록 무교동일품낙지 대표를 비롯해 각 학장과 처장, 이흥평 총학생회 회장과 이수완 총학생회 부회장, 교직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제막식, 대표 기부자의 동판 헌정, 안재환 총장 인사말,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부자 대표로 황필상 박사와 광상현 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박일분 학생지원팀 팀장, 안병록 무교동일품낙지 대표가 동판을 헌정했다.

울곡관 동편 벽면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2004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아주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기관 및 개인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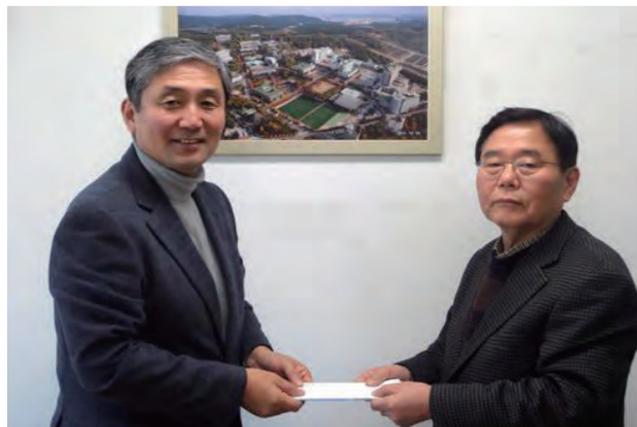
안재환 총장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며 "342명 기부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며 이번 제막식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퇴직 직원 모임 아정회, 발전기금 1000만원 약정

아주대학교 퇴직 직원 모임인 아정회(亞情會)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를 약정하고 지난해 연말 1차로 160만원을 납입했다.

아정회는 '아주대학교에 정이 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퇴직 직원의 모임으로 2011년 10월 발족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월로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이진동 아정회 초대회장전 생활관장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발전기금 기부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도 아주대학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성 전자공학과 명예교수 5000만원 기부

지난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한 이자성 전자공학과 명예교수가 전자공학과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명예교수는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안재환 총장은 3월12일 울곡관 총장실에서 이자성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994년부터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일해 온 이자성 명예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2월말 정년퇴직하면서 정부로부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축구부 학부모회,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아주대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축구부 학부모회 발전기금 전달식은 2월17일 오후 울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축구부 주장을 맡고 있는 허제녕 학생의 아버지인 허남필 학부모회 회장이 안재환 총장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안재환 총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축구부 학부모회가 기부한 1000만원의 발전기금은 축구부 선수 34명의 학부모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열려

교내외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지난 3월14일 울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1000만원씩을 기부한 정형식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와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송용진 물리학과 명예교수, 고광윤 화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안재환 총장은 기부자들에게 감사패와 기부자 예우품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1000만원을 약정하고 500만원을 낸 윤영식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박일분 학생지원팀장도 감사패를 받았다.

장학금을 기부한 외부 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최우경 유정학회 이사장은 2000만원을 전자공학과 장학금으로 기부했고 조애리 디자인아띠 대표는 1500만원을 일반장학금으로 기부했다.

2013 아주를 담은 '원천골 사진편지' 출간

아주대학교의 다양한 풍경과 편지를 담은 '원천골 사진편지-2013 아주를 기억하는 사진과 글'이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1년 동안 매주 동문과 교내 구성원들에게 발송되었던 내용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학발전본부는 지난 한 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추억 속의 풍경, 행사 모습 등을 담아 매주 수요일마다 동문과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원천골 사진편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이은형 동문(사회 92)이 사진과 글을 맡은 책에는 총 52편의 이야기가 담겼다.

대학발전본부는 '원천골 사진편지'를 기부자와 동문, 교내 각 부서에 발송할 예정이다. 대학발전본부(ajousarang@ajou.ac.kr, 031-219-2107~8, 2099)로 문의하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Ajou univ. news _Donation List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 (2014.01 ~ 2014.03)

가진희 / 김동길 / 강경림 / 강미애 / 강석배 / 강승현 / 강엽 / 강영숙 / 강영실 / 강은경 / 강태규 / 강혁 / 강호철 / 강홍민 / 강희영 / 곽명숙 / 곽우실 / 곽창식
구건희 / 구준모 / 국경훈 / 권경수 / 권명희 / 권소라 / 권오일 / 권오훈 / 권종희 / 권지은 / 권진상 / 권춘련 / 기은정 / 길경수 / 김근식 / 김경민 / 김경서 / 김경진
김광민 / 김광은 / 김광윤 / 김근희 / 김기석 / 김기운 / 김기현 / 김남숙 / 김대중 / 김대희 / 김도영 / 김동문 / 김동일 / 김두화 / 김라미 / 김명성 / 김문석 / 김미란
김민구 / 김민수 / 김민정 / 김범택 / 김병곤 / 김병관 / 김병주 / 김보경 / 김봉준 / 김상준 / 김서용 / 김선영 / 김선옥 / 김선일 / 김성렬 / 김성수 / 김성인 / 김성주
김성환 / 김세중 / 김소라 / 김소희 / 김수경 / 김숙영 / 김순희 / 김슬기 / 김승권 / 김승범 / 김승택 / 김연호 / 김영래 / 김영무 / 김영배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아
김영제 / 김영희 / 김완기 / 김용성 / 김용태 / 김우환 / 김윤천 / 김유권 / 김유선 / 김유찬 / 김윤기 / 김은미 / 김은영 / 김의향 / 김민선 / 김장영 / 김재근 / 김재호
김종엽 / 김주연 / 김중권 / 김지나 / 김지연 / 김지윤 / 김지희 / 김진 / 김진홍 / 김찬수 / 김철호 / 김춘자 / 김태규 / 김태동 / 김태환 / 김태희 / 김태희 / 김태영
김행수 / 김현 / 김현실 / 김현아 / 김현준 / 김현중 / 김혜림 / 김혜선 / 김혜진 / 김호빈 / 김환영 / 김효정 / 김홍수 / 김홍식 / 김희정 / 나은우 / 나창용
나충주 / 남궁윤 / 남동호 / 남석현 / 노재성 / 도수일 / 라희정 / 류승우 / 류인복 / 무기명 / 문병철 / 문봉기 / 문소영 / 문승경 / 문은표 / 문주영 / 문현숙
민경복 / 민병현 / 민영기 / 민철기 / 박경미 / 박경배 / 박경주 / 박관식 / 박규민 / 박기현 / 박동하 / 박만규 / 박명분 / 박명준 / 박명철 / 박문성 / 박미미 / 박미현
박범식 / 박병남 / 박보연 / 박봉기 / 박상규 / 박상희 / 박새별 / 박선 / 박성진 / 박소형 / 박수진 / 박승진 / 박아람 / 박영동 / 박은영 / 박은정 / 박인숙 / 박일분
박일중 / 박재범 / 박재영 / 박정옥 / 박정은 / 박주현 / 박준성 / 박지원 / 박지환 / 박진 / 박진희 / 박찬분 / 박찬숙 / 박춘자 / 박태준 / 박한나 / 박해심 / 박현이
박형란 / 박효숙 / 박홍식 / 배기수 / 배성복 / 배진숙 / 백금여 / 백승흠 / 백은주 / 백지흠 / 변지연 / 북미숙 / 서미애 / 서민덕 / 서성일 / 서원희 / 서은지 / 서창희
서혜영 / 석용수 / 선주성 / 선준규 / 소외영 / 소지은 / 손성향 / 손순이 / 송미숙 / 송승희 / 송용진 / 송용호 / 송은희 / 송중식 / 송주은 / 송지훈 / 송충숙 / 송현호
신경철 / 신규태 / 신승수 / 신영관 / 신유정 / 신윤미 / 신준한 / 신형섭 / 신호준 / 심인석 / 심현민 / 안대근 / 안미선 / 안영실 / 안영환 / 안재홍 / 안현남 / 안현수
양승철 / 양정인 / 양형모 / 양홍식 / 양희곤 / 예영민 / 오말지 / 오수연 / 오영택 / 오은애 / 왕재선 / 왕희정 / 우현구 / 원예연 / 원제환 / 위영철 / 위지영 / 유문숙
유미애 / 유상근 / 유영숙 / 유재석 / 유재호 / 유지영 / 유태일 / 유혜만 / 유혜라 / 유희석 / 윤계순 / 윤명호 / 윤성중 / 윤수한 / 윤승현 / 윤정훈 / 이기희 / 이강기
이강준 / 이경중 / 이경진 / 이관우 / 이광 / 이광필 / 이교범 / 이규성 / 이기범 / 이기원 / 이기재 / 이다근 / 이도영 / 이동주 / 이명애 / 이명필 / 이명희 / 이문환
이미경 / 이미숙 / 이미연 / 이민선 / 이민용 / 이민정 / 이상엽 / 이상현 / 이상화 / 이선미 / 이성식 / 이수환 / 이수희 / 이숙영 / 이숙향 / 이순영 / 이순정 / 이승현
이승희 / 이신혜 / 이연정 / 이연희 / 이영돈 / 이영민 / 이영옥 / 이용희 / 이위교 / 이윤환 / 이은소 / 이은주 / 이은현 / 이일신 / 이재욱 / 이재호 / 이재희 / 이종수
이종연 / 이종찬 / 이종화 / 이주봉 / 이주승 / 이주훈 / 이지현 / 이진식 / 이진욱 / 이철주 / 이평애 / 이혜리 / 이해숙 / 이현기 / 이현수 / 이현실 / 이현우 / 이현주
이현진 / 이해원 / 이화영 / 이항우 / 이효정 / 인정숙 / 임기순 / 임기영 / 임동하 / 임병수 / 임선교 / 임승관 / 임신영 / 임영애 / 임용택 / 임인경 / 임종우 / 임지영
임채원 / 임현이 / 임홍석 / 장기홍 / 장길수 / 장대현 / 장도숙 / 장석준 / 장선영 / 장수현 / 장영미 / 장영수 / 장영주 / 장청길 / 장혜영 / 전갑수 / 전기홍 / 전도만
전미선 / 전병홍 / 전상천 / 전세영 / 전창홍 / 전철구 / 정규림 / 정미옥 / 정민석 / 정서진 / 정선용 / 정선희 / 정성현 / 정수용 / 정승아 / 정연호 / 정영근 / 정영기
정영호 / 정운석 / 정재원 / 정정화 / 정준화 / 정찬영 / 정해근 / 정형식 / 정형욱 / 정홍락 / 정희진 / 제갈훈 / 조경숙 / 조미선 / 조선미 / 조선란 / 조선순 / 조성원
조용관 / 조용환 / 조은숙 / 조은영 / 조은혜 / 조재현 / 조재호 / 조한범 / 조혜성 / 조혜정 / 조효정 / 주인수 / 주인로 / 진성호 / 진호성 / 차혜경 / 채수진 / 채윤정
천순자 / 최경덕 / 최경희 / 최미니 / 최병주 / 최상돈 / 최상준 / 최상천 / 최상정 / 최순자 / 최영화 / 최정순 / 최중보 / 최중욱 / 최진혁 / 최홍근 / 최희윤
최희자 / 추자희 / 추황보 / 탁승재 / 하중수 / 하혜영 / 한갑동 / 한경진 / 한경화 / 한상욱 / 한성우 / 한승이 / 한승진 / 한원섭 / 한재호 / 한진이 / 함동수 / 허균
허문희 / 허수정 / 현명선 / 호정화 / 홍근선 / 홍금숙 / 홍성길 / 홍유선 / 홍재광 / 홍지만 / 홍창형 / 홍창호 / 홍형숙 / 황경주 / 황교순 / 황원선 / 황은경 / 황은주
황재철 / 황진순 / 황진연 / 황창호 / 황준비 / 황춘석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주)동양특수금속 / (주)디지털헤럴드 / (주)랜버드테크놀로지 / (주)씨인텔레콤 / (주)이지로보틱스 / (주)제이투 / KT&G 상상펀드기금운영위
원회 / 가치있는밥상 / 건축학과 학생일동 /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 계몽춘천달걀비 / 내가짙한달 / 뉴플러스 정보통신(주) / 다래 / 다빈치케이(주) / 대우조선해양
건설(주) / 도병원약국 / 돈황갈비 / 렉스젠(주) / 마포소문난죽발순대국 / 맘소스고기부페 아주대점 / 명동칼국수 사브사브 / 무교동일품너지 / 미스터셰프 / 불문과
83학번 동기 / 서울광학산업(주) / 소아청소년과학교실 / 솔뚜껍삼겹살 / 스탠다드치타드은행 / 신생아집중치료실 / 쌍용레미콘(주) / 아정희 / 아주스크린 / 아주의
료행정연구회 / 영동상사 / 외상집중치료실 / 유니온플라워 / 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 의료원 13총동병동 / 의료원 13총서병동 / 의료원 7총동병동 / 의료원 7
총서병동 / 의료원 가정의학과교실 / 의료원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 의료원 방사선종양학교실 / 의료원 분만실 / 의료원 소화기내과학교실 / 의료원 신경외과학교
실 / 의료원 알레르기내과교실 / 의료원 약제팀 / 의료원 영상의학교실 /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교실 / 의료원 해부학교실 / 의료원 호흡기
내과교실 / 제일피개백반 / 조인세(주) / 중소기업은행 / 춘하추동 / 한국그루 / 한우람 명품관(주) / 해상엔지니어링(주) / 허수아비 / 현경 / 화학과 동문회 / 우덕재
단 / 송화재단 / 충청남도 서천소방서 /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 봉은재단 / 삼성복지재단

1-1-1 캠페인 기부자 (2014.01 ~ 2014.03)

갈원모 / 감동근 / 김정규 / 강경원 / 강경택 / 강경호 / 강기룡 / 강기현 / 강기훈 / 강나래 / 강동구 / 강두경 / 강명구 / 강명덕 / 강명희 / 강민구 / 강민철 / 강병돈
강병욱 / 강병혁 / 강복선 / 강석배 / 강석환 / 강성식 / 강성윤 / 강승규 / 강승규 / 강신구 / 강신웅 / 강신호 / 강신희 / 강영모 / 강영화 / 강원규 / 강윤환 / 강은철
강인희 / 강중성 / 강중우 / 강준성 / 강중수 / 강진모 / 강창진 / 강중권 / 강태양 / 강태영 / 강태현 / 강태호 / 강하중 / 강한현 / 강현 / 강현우 / 강현주 / 강형호
강호식 / 강호출 / 강훈 / 강희석 / 강희진 / 경정현 / 경태영 / 경명원 / 고강현 / 고건웅 / 고광성 / 고기황 / 고대권 / 고동식 / 고동현 / 고명식 / 고민진 / 고병각
고병수 / 고상현 / 고성민 / 고순재 / 고양순 / 고훈 / 고은화 / 고인용 / 고재만 / 고재용 / 고정민 / 고제상 / 고종섭 / 공경순 / 공만식 / 공영주 / 공훈 / 곽명숙
곽범서 / 곽병철 / 곽선훈 / 곽옥경 / 곽정순 / 곽정신 / 곽정화 / 곽필준 / 구병춘 / 구본실 / 구본춘 / 구유희 / 구지영 / 구지현 / 구형자 / 구혜진 / 구효숙 / 국영호
권건보 / 권경섭 / 권광우 / 권기중 / 권기형 / 권대진 / 권범윤 / 권성환 / 권세영 / 권순모 / 권순안 / 권순자 / 권순정 / 권영민 / 권오식 / 권오웅 / 권오일 / 권오중
권오필 / 권오희 / 권응금 / 권응일 / 권우식 / 권우택 / 권윤하 / 권이수 / 권익주 / 권익진 / 권인애 / 권재일 / 권재현 / 권정의 / 권종희 / 권주빈 / 권주연 / 권준희
권춘련 / 권태인 / 권혁동 / 권혁연 / 권혁신 / 권혁용 / 권혁중 / 권혜연 / 금동순 / 기은정 / 길경수 / 길기남 / 길애숙 / 김가영 / 김가희 / 김강형 / 김경규 / 김경래
김경수 / 김경숙 / 김경현 / 김경혜 / 김경희 / 김경희 / 김계선 / 김계진 / 김광일 / 김광자 / 김구용 / 김국수 / 김국희 / 김권기 / 김규남 / 김규봉 / 김규서 / 김규진
김규태 / 김근 / 김근배 / 김근우 / 김근태 / 김근표 / 김기문 / 김기범 / 김기복 / 김기섭 / 김기용 / 김기준 / 김기창 / 김기철 / 김기태 / 김기현 / 김기형 / 김기형
김기호 / 김기훈 / 김길중 / 김나윤 / 김남기 / 김남길 / 김남욱 / 김남진 / 김남포 / 김다은 / 김대용 / 김대우 / 김대희 / 김대현 / 김대홍 / 김대훈 / 김대희 / 김태영
김도선 / 김도영 / 김도원 / 김동규 / 김동기 / 김동백 / 김동석 / 김동수 / 김동영 / 김동우 / 김동욱 / 김동익 / 김동일 / 김대현 / 김대홍 / 김대훈 / 김대희 / 김태영
김두호 / 김병덕 / 김병범 / 김병수 / 김병숙 / 김병현 / 김병호 / 김모은 / 김무림 / 김문관 / 김문석 / 김미숙 / 김미옥 / 김미자 / 김미정 / 김민구 / 김민선
김민성 / 김민영 / 김민용 / 김민우 / 김민정 / 김민주 / 김범수 / 김병곤 / 김병기 / 김병동 / 김병섭 / 김병수 / 김병영 / 김병욱 / 김병주 / 김병준 / 김병진 / 김보경
김봉렬 / 김봉식 / 김봉준 / 김봉춘 / 김삼영 / 김상권 / 김상돈 / 김상동 / 김상룡 / 김상만 / 김상선 / 김상섭 / 김상열 / 김상영 / 김상우 / 김상태 / 김상훈 / 김서영
김석원 / 김석태 / 김석훈 / 김선경 / 김선관 / 김선규 / 김선목 / 김선자 / 김선재 / 김선태 / 김성기 / 김성락 / 김성란 / 김성룡 / 김성만 / 김성수 / 김성숙 / 김성실
김성우 / 김성원 / 김성조 / 김성중 / 김성현 / 김성희 / 김세득 / 김세영 / 김세은 / 김세철 / 김승 / 김승암 / 김승운 / 김수기 / 김수산 / 김수영 / 김수용 / 김수지
김수진 / 김수철 / 김수현 / 김숙희 / 김순복 / 김순태 / 김슬찬 / 김승권 / 김승규 / 김승만 / 김승애 / 김승우 / 김승욱 / 김승주 / 김승진 / 김승희 / 김시범 / 김시완
김시원 / 김시천 / 김신욱 / 김이름 / 김애숙 / 김애신 / 김애주 / 김양현 / 김연석 / 김연수 / 김연정 / 김연철 / 김연화 / 김영국 / 김영기 / 김영길 / 김영무 / 김영범
김영빈 / 김영서 / 김영석 / 김영선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일 / 김영주 / 김영중 / 김영진 / 김영찬 / 김영천 / 김영화 / 김영환 / 김영희 / 김예영 / 김오남 / 김옥규
김옥진 / 김옥현 / 김요용 / 김용각 / 김용갑 / 김용걸 / 김용경 / 김용구 / 김용국 / 김용근 / 김용기 / 김용덕 / 김용석 / 김용성 / 김용수 / 김용운 / 김용태 / 김용환
김우원 / 김우진 / 김욱중 / 김웅기 / 김웅일 / 김원경 / 김원식 / 김원양 / 김원우 / 김원규 / 김유권 / 김유복 / 김유신 / 김윤기 / 김윤정 / 김윤태 / 김유태 / 김은규
김은석 / 김은숙 / 김은실 / 김은영 / 김은정 / 김은진 / 김은호 / 김은희 / 김이영 / 김익현 / 김익환 / 김인규 / 김인수 / 김인애 / 김일수 / 김자훈 / 김재근 / 김재문
김재용 / 김재은 / 김재정 / 김재학 / 김재혁 / 김재현 / 김재호 / 김재홍 / 김재환 / 김전금 / 김점분 / 김정구 / 김정권 / 김정남 / 김정두 / 김정목 / 김정수 / 김정숙
김정자 / 김정현 / 김정호 / 김정환 / 김정호 / 김제경 / 김제성 / 김중건 / 김중구 / 김중국 / 김중규 / 김중길 / 김중남 / 김중문 / 김중범 / 김중산 / 김중선 / 김중수
김중숙 / 김중오 / 김중완 / 김중원 / 김중윤 / 김중준 / 김중철 / 김중태 / 김중현 / 김주래 / 김주봉 / 김주석 / 김주용 / 김주태 / 김주혁 / 김주현 / 김주환 / 김준상
김준석 / 김준식 / 김준영 / 김준용 / 김준한 / 김준희 / 김중구 / 김지관 / 김지수 / 김지양 / 김지영 / 김지은 / 김지현 / 김지혜A / 김지호 / 김지훈 / 김지홍 / 김진곤
김진명 / 김진선 / 김진성 / 김진수 / 김진안 / 김진영 / 김진우 / 김진원 / 김진현 / 김진호 / 김찬규 / 김찬우 / 김찬일 / 김찬호 / 김창규 / 김창근 / 김창길 / 김창식
김창욱 / 김창조 / 김창주 / 김창진 / 김창현 / 김창호 / 김창희 / 김창훈 / 김천호 / 김천훈 / 김철수 / 김철호 / 김준계 / 김춘식 / 김춘재 / 김치구 / 김태경
김태식 / 김태연 / 김태영 / 김태욱 / 김태윤 / 김태일 / 김태출 / 김태훈 / 김판수 / 김광환 / 김필기 / 김하나 / 김하슬린 / 김학규 / 김학철 / 김한규 / 김한복 / 김한성
김한욱 / 김한중 / 김혁진 / 김현 / 김현기 / 김현덕 / 김현돈 / 김현섭 / 김현수 / 김현숙 / 김현식 / 김현실 / 김현욱 / 김현우 / 김현중 / 김현주 / 김현호 / 김현희
김형규 / 김형근 / 김형선 / 김형수 / 김형식 / 김형우 / 김형준 / 김형택 / 김형호 / 김혜선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용 / 김호남 / 김호빈 / 김호석 / 김호섭 / 김홍규
김홍석 / 김홍순 / 김희정 / 김효동 / 김효상 / 김휘용 / 김홍수 / 김홍식 / 김홍용 / 김희순 / 나귀연 / 나금옥 / 나기석 / 나다혁 / 나명순 / 나은우 / 나중호 / 나창용
나창문 / 나창일 / 나태영 / 나혜란 / 나혜련 / 남경택 / 남광희 / 남궁규태 / 남궁균 / 남보현 / 남상능 / 남상신 / 남승우 / 남영실 / 남정호 / 남현모 / 남현우 / 노기열
노농길 / 노동현 / 노민수 / 노병희 / 노성완 / 노숙경 / 노영덕 / 노은숙 / 노재우 / 노정식 / 노천규 / 노학래 / 노현욱 / 노현정 / 노형근 / 노호근 / 노희정 / 도미진
도성재 / 도정열 / 도학순 / 라인옥 / 류무자 / 류상현 / 류성 / 류우주 / 류원대 / 류재안 / 류종규 / 류지상 / 류지현 / 류창호 / 류홍천 / 마명섭 / 마재화 / 명재호
목병균 / 목익수 / 무기명 / 문경식 / 문경임 / 문관수 / 문도준 / 문명식 / 문명예 / 문병철 / 문상진 / 문승재 / 문연숙 / 문영준 / 문원길 / 문은표 / 문재경 / 문정빈
문정옥 / 문지원 / 문창규 / 문한영 / 문혜연 / 문호진 / 문화봉 / 민경도 / 민경은 / 민병갑 / 민병구 / 민병도 / 민병윤 / 민병현 / 민오경 / 민정기 / 민종식 / 민준기
민준영 / 민지인 / 민철기 / 민태홍 / 민현식 / 박강서 / 박건수 / 박건용 / 박경란 / 박경수 / 박경준 / 박경현 / 박경호 / 박경희 / 박계선 / 박광배 / 박광준 / 박광훈
박권수 / 박규찬 / 박근우 / 박기동 / 박기원 / 박기준 / 박기진 / 박기표 / 박기현 / 박기홍 / 박낙원 / 박노석 / 박대원 / 박동애 / 박동진 / 박만규 / 박만진 / 박명균
박명선 / 박명분 / 박명욱 / 박명희 / 박모수 / 박무돈 / 박문산 / 박문순 / 박미도 / 박미랑 / 박미미 / 박미숙 / 박미현 / 박미희 / 박민경 / 박민규 / 박범식 / 박병균
박병남 / 박병서 / 박병우 / 박병윤 / 박병창 / 박병훈 / 박복순 / 박봉기 / 박상기 / 박상보 / 박상신 / 박상오 / 박상욱 / 박상철 / 박상희 / 박선혜 / 박선화 / 박창수
박성순 / 박성우 / 박성욱 / 박성준 / 박성진 / 박성철 / 박성환 / 박소영 / 박소은 / 박수경 / 박수용 / 박수진 / 박수택 / 박수현 / 박순례 / 박순식 / 박순용 / 박승규
박승모 / 박시운 / 박신명 / 박신혜 / 박인태 / 박인홍 / 박연욱 / 박연희 / 박영근 / 박영동 / 박영란 / 박영만 / 박영미 / 박영복 / 박영석 / 박영선 / 박영수 / 박영신
박영원 / 박영주 / 박영준 / 박영철 / 박원순 / 박용배 / 박용석 / 박용채 / 박용환 / 박우경 / 박우하 / 박원희 / 박유성 / 박윤서 / 박은희 / 박인규 / 박인기 / 박인숙

1-1-1 캠페인 기부자 (2014.01 ~ 2014.03)

박일분 / 박일임 / 박장욱 / 박재경 / 박재관 / 박재범 / 박재연 / 박재홍 / 박정식 / 박정욱 / 박정운 / 박정웅 / 박정원 / 박정재 / 박정진 / 박정현 / 박정훈 / 박종경
 박종극 / 박종기 / 박종무 / 박종민 / 박종석 / 박종선 / 박종식 / 박종원 / 박종윤 / 박종채 / 박종춘 / 박종호 / 박종희 / 박주연 / 박주완 / 박준수 / 박준인 / 박중선
 박중수 / 박지원 / 박진 / 박진일 / 박진희 / 박찬욱 / 박찬웅 / 박찬효 / 박창동 / 박철 / 박철균 / 박철현 / 박철형 / 박총림 / 박태웅 / 박태원 / 박판구 / 박학범
 박해심 / 박해자 / 박혁 / 박현숙 / 박현실 / 박현일 / 박형철 / 박홍웅 / 박환창 / 박효순 / 박효진 / 박후상 / 박희진 / 박희태 / 반영무 / 반정호 / 반철희 / 방경원
 방병천 / 방성주 / 방재욱 / 방현천 / 배공주 / 배기한 / 배명환 / 배미애 / 배미현 / 배범준 / 배상수 / 배성준 / 배수환 / 배영환 / 배지원 / 배철우 / 배학원 / 배현근
 백병원 / 백남태 / 백병하 / 백상우 / 백선희 / 백설경 / 백영호 / 백윤기 / 백은주 / 백인선 / 백일웅 / 백정인 / 백차현 / 범진환 / 변경수 / 변동진 / 변승환 / 변용석
 변지민 / 변진욱 / 변철진 / 변태환 / 변현오 / 변희주 / 변희진 / 복미숙 / 봉금희 / 봉래중 / 부춘성 / 사혜영 / 서국동 / 서귀암 / 서기준 / 서동재 / 서명원 / 서문호
 서병수 / 서보건 / 서봉석 / 서봉현 / 서성택 / 서수한 / 서순영 / 서영덕 / 서원희 / 서유나 / 서은정 / 서은지 / 서재홍 / 서재훈 / 서정남 / 서정민 / 서정원 / 서정현
 서창희 / 서현진 / 서형탁 / 서희덕 / 석광열 / 석희덕 / 선영옥 / 선우찬 / 선효덕 / 설광수 / 설용훈 / 성미옥 / 성선복 / 성익중 / 성인선 / 성점수 / 소귀섭 / 소민섭
 소병천 / 소의영 / 소지은 / 손경아 / 손경은 / 손덕기 / 손동일 / 손동재 / 손두현 / 손미선 / 손보익 / 손석상 / 손순이 / 손순환 / 손응중 / 손재영 / 손정제 / 손정훈
 손지영 / 손치배 / 손태식 / 손현숙 / 송경수 / 송경희 / 송근섭 / 송기상 / 송기정 / 송기찬 / 송명동 / 송명중 / 송미숙 / 송미영 / 송병성 / 송병원 / 송석희 / 송선욱
 송성용 / 송수곤 / 송수훈 / 송순임 / 송승용 / 송영숙 / 송영우 / 송욱자 / 송완재 / 송홍호 / 송원호 / 송윤희 / 송은주 / 송은지 / 송재경 / 송재규 / 송재길 / 송정미
 송정석 / 송정원 / 송중례 / 송중식 / 송주은 / 송진호 / 송중숙 / 송치영 / 송현호 / 송혜영 / 송호영 / 송희상 / 송홍배 / 신가나 / 신경철 / 신동욱 / 신동일 / 신동주
 신동철 / 신동혁 / 신동희 / 신두철 / 신만재 / 신명호 / 신미정 / 신병우 / 신상기 / 신상운 / 신상진 / 신성은 / 신성철 / 신순욱 / 신승수 / 신영철 / 신용강 / 신용덕
 신우진 / 신욱 / 신윤섭 / 신윤철 / 신응식 / 신익수 / 신재봉 / 신재수 / 신재숙 / 신재윤 / 신정섭 / 신정수 / 신정인 / 신정진 / 신정철 / 신정호 / 신중대 / 신준하
 신준한 / 신준호 / 신중현 / 신창호 / 신태창 / 신현국 / 신현남 / 신현주 / 신현지 / 신형섭 / 신호연 / 신호준 / 심관용 / 심동섭 / 심우성 / 심우영 / 심웅섭 / 심인석
 심재국 / 심정철 / 심준기 / 심지현 / 심학철 / 안규세 / 안기홍 / 안남욱 / 안대근 / 안동현 / 안명섭 / 안미선 / 안병립 / 안병식 / 안병열 / 안병철 / 안상수 / 안선미
 안선호 / 안성철 / 안성화 / 안승숙 / 안소일 / 안영선 / 안영찬 / 안영환 / 안예환 / 안은옥 / 안익훈 / 안재성 / 안재현 / 안재환 / 안재희 / 안정열 / 안정철 / 안정표
 안정현 / 안준하 / 안창식 / 안창영 / 안창준 / 안철순 / 안치규 / 안치원 / 안태훈 / 안현남 / 안혜영 / 안호영 / 안희찬 / 양광모 / 양광하 / 양국현 / 양기천 / 양기태
 양남미 / 양문모 / 양미령 / 양민수 / 양병용 / 양병호 / 양봉식 / 양성식 / 양승권 / 양승렬 / 양승석 / 양시영 / 양영재 / 양원석 / 양윤정 / 양익주 / 양인모 / 양인식
 양재현 / 양정안 / 양찬규 / 양춘수 / 양대영 / 양한나 / 양한별 / 양한덕 / 양호진 / 양희창 / 양희문 / 양희성 / 양희정 / 양희찬 / 어경미 / 어미자 / 어승규 / 어윤하
 엄경식 / 엄경이 / 엄기열 / 엄민희 / 엄봉학 / 엄애현 / 엄재득 / 엄정완 / 엄태문 / 여각동 / 여철현 / 연구봉 / 엄경훈 / 엄동일 / 엄병국 / 엄성현 / 엄우영 / 예홍진
 오경윤 / 오귀석 / 오귀훈 / 오대지 / 오동근 / 오동욱 / 오란석 / 오명숙 / 오명순 / 오상경 / 오상탁 / 오설빈 / 오성원 / 오성호 / 오세창 / 오세철 / 오세태 / 오수기
 오순아 / 오승한 / 오신규 / 오신봉 / 오영권 / 오영숙 / 오영태 / 오영택 / 오영호 / 오왕준 / 오용인 / 오은경 / 오은영 / 오인숙 / 오인환 / 오재영 / 오정락 / 오정에
 오주섭 / 오주영 / 오주서 / 오지환 / 오진영 / 오창준 / 오창현 / 오대근 / 오택원 / 오현숙 / 오현우 / 오현정 / 오형택 / 오혜숙 / 오호영 / 옥정미 / 왕남원 / 왕영숙
 왕진식 / 왕세중 / 왕은희 / 우경은 / 우동석 / 우병주 / 이상혁 / 우인석 / 우웅재 / 우은경 / 우일영 / 우재영 / 우정석 / 우정필 / 우종재 / 우종근 / 우창완 / 우춘섭
 우효정 / 원민호 / 원성화 / 원용석 / 원유정 / 원윤희 / 원주경 / 원지호 / 위규범 / 위정식 / 위훈환 / 유갑진 / 유경호 / 유경화 / 유경희 / 유권중 / 유기상 / 유덕기
 유동문 / 유명호 / 유문숙 / 유미애 / 유병대 / 유상근 / 유상열 / 유상원 / 유상혁 / 유선영 / 유성렬 / 유성재 / 유승선 / 유승화 / 유시대 / 유연창 / 유영숙 / 유영애
 유영해 / 유옥순 / 유용석 / 유용수 / 유용식 / 유인상 / 유재권 / 유재석 / 유재철 / 유재경 / 유준현 / 유진원 / 유찬재 / 유철형 / 유중상 / 유태규 / 유태근 / 유태현
 유하임 / 유한석 / 유현준 / 유혜라 / 유호상 / 유희석 / 육현민 / 윤광석 / 윤기원 / 윤도원 / 윤명범 / 윤민경 / 윤민욱 / 윤상익 / 윤상중 / 윤상희 / 윤석열 / 윤석희
 윤선희 / 윤성택 / 윤성희 / 윤수연 / 윤순장 / 윤승원 / 윤승현 / 윤연숙 / 윤영주 / 윤영화 / 윤영식 / 윤우일 / 윤은경 / 윤은주 / 윤익섭 / 윤인명 / 윤인성 / 윤인수
 윤장희 / 윤재덕 / 윤재승 / 윤정용 / 윤중엽 / 윤종일 / 윤중찬 / 윤주용 / 윤준구 / 윤준근 / 윤진 / 윤진미 / 윤진수 / 윤진숙 / 윤찬웅 / 윤춘기 / 윤치영 / 윤태영
 윤필영 / 윤학근 / 윤현철 / 윤형진 / 윤혜경 / 윤혜정 / 윤희 / 은미희 / 은유진 / 이강구 / 이강기 / 이강준 / 이강현 / 이건주 / 이건화 / 이경복 / 이경석 / 이경섭
 이경우 / 이경재 / 이경중 / 이경중 / 이경현 / 이경호 / 이경환 / 이계주 / 이광노 / 이광목 / 이광미 / 이광용 / 이광중 / 이광호 / 이광희 / 이교범 / 이교재 / 이근상
 이규철 / 이규환 / 이근석 / 이금례 / 이금숙 / 이기근 / 이기명 / 이기복 / 이기선 / 이기섭 / 이기승 / 이기영 / 이기중 / 이기홍 / 이기훈 / 이다솜 / 이대범 / 이대현
 이도섭 / 이동규 / 이동근 / 이동기 / 이동렬 / 이동성 / 이동렬 / 이동원 / 이동진 / 이동현 / 이도호 / 이만기 / 이만성 / 이명운 / 이명자 / 이명주 / 이명호 / 이문근
 이문상 / 이문희 / 이미경 / 이미남 / 이미영 / 이미자 / 이민경 / 이민상 / 이민선 / 이민섭 / 이민우 / 이민호 / 이범식 / 이병규 / 이병근 / 이병기 / 이병대 / 이병선
 이병엽 / 이병욱 / 이병조 / 이병호 / 이보미 / 이보영 / 이복실 / 이복훈 / 이복식 / 이부영 / 이분열 / 이삼근 / 이삼주 / 이상 / 이상국 / 이상권 / 이상규 / 이상미
 이상민 / 이상성 / 이상순 / 이상신 / 이상아 / 이상열 / 이상엽 / 이상운 / 이상원 / 이상준 / 이상천 / 이상철 / 이상현 / 이상훈 / 이석원 / 이석현 / 이선미 / 이선이
 이선형 / 이선희 / 이성근 / 이성숙 / 이성식 / 이상아 / 이상엽 / 이상우 / 이상운 / 이상윤 / 이상주 / 이상진 / 이상현 / 이상호 / 이상희 / 이세원 / 이소정 / 이송호
 이수영 / 이수진 / 이수형 / 이숙향 / 이순아 / 이순영 / 이순태 / 이순택 / 이순화 / 이슬 / 이승구 / 이승근 / 이승우 / 이승제 / 이승준 / 이승현 / 이승희 / 이선형
 이영호 / 이양희 / 이연강 / 이연주 / 이연희 / 이영 / 이영경 / 이영국 / 이영구 / 이영미 / 이영범 / 이영석 / 이영옥 / 이영철 / 이영희 / 이영학 / 이영현
 이예희 / 이예리 / 이예진 / 이옥자 / 이왕형 / 이왕로 / 이왕목 / 이왕복 / 이왕수 / 이왕욱 / 이왕운 / 이우암 / 이우영 / 이운갑 / 이운호 / 이원량 / 이원엽
 이원중 / 이원찬 / 이원진 / 이윤우 / 이윤정 / 이윤제 / 이윤중 / 이윤지 / 이윤희 / 이은경 / 이은규 / 이은성 / 이은영 / 이은주 / 이은형 / 이은호 / 이은희 / 이유포
 이인규 / 이인수 / 이인순 / 이인풍 / 이인호 / 이일주 / 이일표 / 이자성 / 이장근 / 이재권 / 이재균 / 이재길 / 이재려 / 이재민 / 이재성 / 이재순 / 이재영 / 이재영
 이재욱 / 이재용 / 이재의 / 이재천 / 이재평 / 이재현 / 이점용 / 이정돈 / 이정복 / 이정상 / 이정성 / 이정수 / 이정순 / 이정신 / 이정우 / 이정원 / 이정은 / 이정인

1-1-1 캠페인 기부자 (2014.01 ~ 2014.03)

이정일 / 이정재 / 이정준 / 이정철 / 이정태 / 이정표 / 이정현 / 이정호 / 이정환 / 이정훈 / 이종근 / 이종대 / 이종섭 / 이종연 / 이종오 / 이종용 / 이종욱 / 이종원
 이종용 / 이종찬 / 이종태 / 이종현 / 이종훈 / 이주미 / 이주성 / 이주완 / 이주호 / 이주환 / 이준명 / 이준섭 / 이준수 / 이준영 / 이준은 / 이준호 / 이준화 / 이지복
 이지상 / 이지연 / 이지원 / 이지현 / 이지훈 / 이진경 / 이진구 / 이진국 / 이진석 / 이진선 / 이진아 / 이진영 / 이진우 / 이진주 / 이진호 / 이진희 / 이찬봉 / 이창수
 이창우 / 이창준 / 이창환 / 이창훈 / 이채린 / 이채영 / 이채우 / 이철기 / 이충균 / 이충식 / 이충용 / 이치인 / 이태욱 / 이태원 / 이태웅 / 이태재 / 이태희 / 이택천
 이택형 / 이평애 / 이평천 / 이하영 / 이한규 / 이한규 / 이한록 / 이한석 / 이한솔 / 이한식 / 이한영 / 이혜승 / 이혜준 / 이항숙 / 이항희 / 이혁준 / 이현규 / 이현명
 이현상 / 이현실 / 이현욱 / 이현진 / 이현택 / 이형모 / 이형무 / 이형민 / 이형익 / 이형천 / 이혜경 / 이호근 / 이호영 / 이호중 / 이화수 / 이화숙 / 이화영 / 이효걸
 이효순 / 이효식 / 이효철 / 이휘동 / 이홍수 / 이희강 / 이희연 / 인정근 / 임경빈 / 임규만 / 임근찬 / 임기영 / 임동규 / 임동수 / 임동하 / 임명재 / 임명훈 / 임모환
 임문채 / 임민호 / 임병국 / 임병수 / 임병엽 / 임봉길 / 임석배 / 임석주 / 임석철 / 임선욱 / 임성욱 / 임승주 / 임양미 / 임영무 / 임영준 / 임용백 / 임유빈 / 임윤희
 임지영 / 임진규 / 임진수 / 임재건 / 임창규 / 임재숙 / 임재영 / 임재원 / 임준기 / 임춘섭 / 임춘성 / 임춘식 / 임태규 / 임현 / 임호순 / 임홍식 / 임희선 / 임홍순
 장광열 / 장기순 / 장도영 / 장병정 / 장봉희 / 장상만 / 장서린 / 장석일 / 장석진 / 장선규 / 장세덕 / 장세찬 / 장소영 / 장수경 / 장영미 / 장영수 / 장용석 / 장용창
 장용호 / 장우진 / 장은진 / 장은혜 / 장정애 / 장준교 / 장준복 / 장준석 / 장준순 / 장지선 / 장지연 / 장지숙 / 장진엽 / 장진영 / 장철웅 / 장혜영 / 장호 / 장홍임
 장희철 / 전경근 / 전경남 / 전근열 / 전도수 / 전두수 / 전명자 / 전병도 / 전병수 / 전상욱 / 전성일 / 전성표 / 전성환 / 전수정 / 전승민 / 전승준 / 전승진 / 전영목
 전용현 / 전용호 / 전우석 / 전재현 / 전정옥 / 전정조 / 전지영 / 전진수 / 전창규 / 전현수 / 전현숙 / 전형우 / 정경훈 / 정경희 / 정규영 / 정구창 / 정규범 / 정규순
 정규하 / 정규희 / 정기숙 / 정기정 / 정기현 / 정기환 / 정기훈 / 정남우 / 정다연 / 정대중 / 정동민 / 정동열 / 정두연 / 정명숙 / 정명신 / 정문기 / 정미숙 / 정민주
 정민호 / 정병근 / 정복길 / 정봉석 / 정상호 / 정서진 / 정석모 / 정선교 / 정선엽 / 정성영 / 정성운 / 정성윤 / 정성중 / 정성환 / 정성희 / 정세훈 / 정수빈 / 정순영
 정순임 / 정승화 / 정애경 / 정안민 / 정양원 / 정양호 / 정연광 / 정연영 / 정연재 / 정연호 / 정연훈 / 정영욱 / 정영채 / 정완식 / 정왕진 / 정요엘 / 정윤희 / 정우진
 정운규 / 정우찬 / 정운석 / 정익대 / 정익원 / 정이숙 / 정인권 / 정인수 / 정인하 / 정일규 / 정일한 / 정재기 / 정재영 / 정재원 / 정재래 / 정정문 / 정제환 / 정중권
 정주호 / 정준모 / 정지순 / 정지윤 / 정진 / 정창경 / 정채민 / 정청용 / 정대선 / 정대수 / 정대용 / 정대화 / 정한웅 / 정해근 / 정해욱 / 정해준 / 정현숙 / 정현웅
 정현우 / 정혜림 / 정혜원 / 정혜인 / 정혜지 / 정호연 / 정호운 / 정홍규 / 정희교 / 정희진 / 조강래 / 조걸훈 / 조경숙 / 조경태 / 조광국 / 조광순 / 조규열 / 조규태
 조기홍 / 조길원 / 조남욱 / 조동식 / 조두진 / 조명규 / 조명순 / 조무창 / 조문준 / 조병성 / 조병태 / 조병환 / 조병원 / 조성만 / 조성철 / 조성태 / 조수진 / 조아라
 조양숙 / 조연제 / 조영권 / 조영록 / 조영상 / 조영석 / 조영호 / 조원익 / 조완호 / 조용근 / 조용백 / 조우리 / 조우현 / 조원규 / 조원주 / 조윤상 / 조윤진 / 조은경
 조은숙 / 조은주 / 조익수 / 조익환 / 조인성 / 조재용 / 조재형 / 조재환 / 조정숙 / 조정은 / 조정한 / 조종순 / 조종용 / 조중열 / 조중환 / 조지만 / 조진선 / 조총희
 조태성 / 조하연 / 조한덕 / 조한식 / 조한정 / 조해성 / 조해정 / 조현수 / 조현우 / 조현우 / 조현주 / 조형규 / 조혜성 / 조혜정 / 조환 / 조환명 / 조희형 / 주광진
 주기영 / 주동준 / 주민규 / 주명천 / 주일로 / 주창우 / 주창원 / 주필상 / 지승구 / 지승렬 / 지영교 / 지영선 / 지준경 / 지찬원 / 지춘수 / 진경년 / 진광선 / 진누리
 진명주 / 진명철 / 진성호 / 진주현 / 진현우 / 진혜지 / 차미희 / 차상훈 / 차선희 / 차영선 / 차영주 / 차은별 / 차춘근 / 차환윤 / 채규창 / 채석환 / 채영호 / 채일
 천명길 / 천순자 / 천승락 / 최경혜 / 최경희 / 최관수 / 최광식 / 최규선 / 최근경 / 최근배 / 최근실 / 최근호 / 최금숙 / 최기락 / 최기원 / 최기혁 / 최길수 / 최도선
 최만조 / 최만중 / 최명규 / 최명지 / 최모석 / 최문규 / 최문호 / 최미영 / 최민국 / 최병국 / 최병욱 / 최상돈 / 최상범 / 최상한 / 최선정 / 최성남 / 최성달 / 최수도
 최수연 / 최수영 / 최순식 / 최순자 / 최승권 / 최승순 / 최승윤 / 최승현 / 최시현 / 최신영 / 최연식 / 최영국 / 최영남 / 최영두 / 최영락 / 최영수 / 최영실 / 최영우
 최영재 / 최영호 / 최옥분 / 최용준 / 최용호 / 최우용 / 최원덕 / 최원석 / 최원신 / 최원진 / 최유미 / 최윤 / 최윤영 / 최윤호 / 최윤희 / 최용현 / 최은우 / 최윤선
 최익규 / 최익선 / 최인자 / 최인태 / 최재근 / 최재승 / 최재은 / 최재필 / 최재혁 / 최재현 / 최재효 / 최정민 / 최정영 / 최정주 / 최중우 / 최중욱 / 최준영 / 최중성
 최중영 / 최중원 / 최중호 / 최진규 / 최진안 / 최진형 / 최창식 / 최철원 / 최춘석 / 최충현 / 최태영 / 최하영 / 최학철 / 최현아 / 최형경 / 최홍근 / 최희찬
 최희선 / 추동욱 / 추병윤 / 추삼민 / 추호석 / 탁현배 / 태상원 / 편재필 / 편준호 / 표준상 / 하성욱 / 하영화 / 하원국 / 하윤수 / 하종진 / 하지환 / 한경화 / 한경희
 한관희 / 한광남 / 한근희 / 한규진 / 한기상 / 한기자 / 한기홍 / 한다예 / 한민규 / 한봉희 / 한상란 / 한상욱 / 한성준 / 한상철 / 한석근 / 한석봉 / 한성준 / 한성희
 한승엽 / 한승호 / 한영민 / 한영석 / 한영엽 / 한영희 / 한운수 / 한윤희 / 한은구 / 한재광 / 한정규 / 한정숙 / 한정연 / 한종인 / 한중희 / 한진희 / 한창근 / 한태규
 한혁진 / 한형욱 / 한호 / 한화영 / 한호식 / 한희영 / 함건주 / 함경숙 / 함정화 / 함형규 / 함형미 / 함형이 / 함효준 / 하근우 / 허가영 / 허려화 / 허문희 / 허미성
 허석수 / 허성욱 / 허성철 / 허인영 / 허준 / 허택만 / 허호우 / 한남주 / 현서광 / 현석우 / 현수 / 현연식 / 현정은 / 현희숙 / 호정화 / 홍권선 / 홍권희 / 홍근선
 홍기택 / 홍다빈 / 홍덕표 / 홍만표 / 홍민철 / 홍범준 / 홍보영 / 홍봉숙 / 홍석만 / 홍석진 / 홍석표 / 홍성기 / 홍성수 / 홍성호 / 홍세경 / 홍수정 / 홍순갑 / 홍순희
 홍승범 / 홍영수 / 홍영숙 / 홍우리 / 홍원기 / 홍인철 / 홍재영 / 홍종원 / 홍종필 / 홍종혁 / 홍지아 / 홍진기 / 홍진선 / 홍혜린 / 황경애 / 황교민 / 황교숙 / 황금철
 황기순 / 황덕모 / 황동선 / 황두성 / 황란영 / 황명수 / 황미라 / 황민숙 / 황민하 / 황병철 / 황보찬 / 황석영 / 황선관 / 황선영 / 황성규 / 황성욱 / 황성진 / 황수연
 황순석 / 황순연 / 황인일 / 황우식 / 황웅상 / 황원복 / 황원선 / 황의경 / 황의정 / 황인국 / 황정민 / 황주현 / 황지환 / 황진연 / 황진욱 / 황찬원 / 황중국 / 황태선
 황혜진

(주)경봉 / (주)성호스텐 / (주)세인 / (주)에이피피 / (주)이포넷 / 다빈치케이(주) / 대양코퍼레이션(주) / 미래공조(주) / 보광동탈이엔지(주) / 비티에스경영컨설팅
 세이프건설(주) / 아주투어 / 앙보이스 / 에스피티 / 영통 수경정원외과 의원 / 유티정보(주) / 윤석민 법률사무소 / 주식회사 세인코스 / 주식회사 엔에프씨 / (주)피프
 (주)한국푸앤코

아프니까 청춘

한 호__ 입학처장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2014학년도 입시를 마쳤다. 교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의 도움이 컸지만 아주대학교를 선택해 준 신입생들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이다.

아주대학교에 진학한 것은 수험생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을 테고 그들이 기대한 바, 우리가 약속한 바를 성실히 실천해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입시 홍보에 나서면서 나는 입학처장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는 다양한 융복합 학문 분야의 경험, 둘째는 즐거운 캠퍼스의 추억이고 셋째는 치밀한 진로지도를 통한 성공적 취업이었다. 입학처장, 그리고 아주대학교 교수로서 나는 이러한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

신입생들은 곧 자신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어떤 학생은 만족하며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어떤 학생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다. 후자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후회가 남더라도 본인의 선택을 최적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선택한 무언가에 대해 좋은 점을 찾아내고 해보겠다는 에너지를 끌어낸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은 '힐링(healing)의 시대'라고 한다. 멘토들이 나서 저서나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젊은이들은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일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멘토링은 치료약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은 무시하고 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기성세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그 가슴앓이의 근원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힐링이 필요 없는 시대와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멘토링에 의존할 뿐 주체적 극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스스로 운동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 아플 일이 없는데,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약을 처방받는 일을 반복하는 한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 즉,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시



행착오는 삶의 자양분이 된다. 우리 신입생들은 '아프니까 청춘'일 수 있고,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2015학년도 입시를 위해 입학처 구성원들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 봄에는 입시 홍보, 여름과 가을에는 수시모집, 겨울의 정시모집의 일정이 빠곡히 달력을 채우고 있다. 올해 입시에 변화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주대학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단순화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먼저 수시모집은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전형으로 진행된다. 학생부 종합은 기존의 입학사정관 ACE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는 기존 학교 생활우수자 전형과 고교교육과정 연계전형이다. 수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가 없어지고 지원자의 인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재 그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어학특기자 전형만 유지하여 영어영문학과와 영어특기자 전형과 불어불문학과와 불어특기자 전형이 마련되어 있다. 정시모집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정원이 200명 이하인 학과들은 가나다 군별로 분할 모집 할 수 없고 하나의 군만 선택하여 정시모집을 진행하게 된다. 아주대학교는 각 학과별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군을 선택했는데 가군과 나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정시모집의 군별 분할모집 금지의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제도들이 그 래왔듯 몇 차례의 입시를 진행하고 나면 안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각 대학은 올 한 해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입시제도를 모두 확정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점차로 단순화 될 것이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주대학교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대학 특색에 맞는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데에 필요한 최적의 방식을 찾기 위해 한 해 동안 고민할 것이다. 또 다시 입시를 시작하며 학내 구성원들과 동문들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올해도 우리는 'Dynamic Tomorrow'를 향해 달려 'Change Tomorrow'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1-1-1 캠페인

- 사랑스런 후배의 멘토가 되어 가슴 속에 자리합니다.
1-1-1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은 철저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돌아갑니다. 심시일만 모인 정성은 매학기 '1-1-1 장학금'으로 후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미래의 자랑스런 아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 선·후배간의 따뜻한 교류가 희망찬 '아주공동체'를 열어갑니다.



☎ 전 화 : 031-219-2107~9, 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 인터넷 : 대학발전본부 홈페이지 (<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 이메일 :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 의사 표시

☎ 팩 스 : 031-219-1623으로 약정서 송부

🏠 CVS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참여(세부사항 전화문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든 큰 사랑 1-1-1 캠페인으로 후배사랑이 가까워집니다.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